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가부장적 태도와 노년기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 효율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고 미 혜

가부장적 태도와 노년기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 효율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0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고 미 혜

# 인 준 서

고미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감사의 글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객관성과 논리적인 안목을 갖고 전체 논문의 틀을 잡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심으로 제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채규만 전공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임상심리에 대한 학문적 도전과 열정을 사제간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한 부분에 대한 격려와 세밀한 지적으로 도움을 주신 장재운 교수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통해 더 나은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옥경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고 교육의 열정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아버지와 큰딸을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존재가 저를 이만큼 버티게 해주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며느리를 사랑과 격려로 지지해 준 시어머님께 감사드리며 가까이서 가장 맘을 써주고 기도해주고 책임과 아낌없는 사랑으로 지지를 보내 준 남편에게 감사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동안 엄마의 빈자리에도 자기 몫을 잘해 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들 민혁이 영민에게 진심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논문에 대해 관심과 용기를 주었던 절친한 친구인 은순이와 통계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준 은순이 신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논문 구성과 체계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준 동생 석범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의 연구에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김정옥 목사님, 설문조사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신 양원준 장로님, 강종림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랑하는 동생 미경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논문을 위해 많이 응원해준 이경애 선생님, 미정, 혜경, 숙희, 지형, 현승돈 집사님, 제부들, 울케, 시아주버님, 도련님, 형님, 동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부끄러운 논문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자세로 겸손하고 항상 노력하고 성장하는 임상심리학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6월

## 논문개요

본 연구는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효율적 의사소통이 갖는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서울 인근 지역, 전북 군산 일부지역에 위치한 65세 이상 기혼남녀 210명이었고, 한국형 가부장적 태도 척도(Korean Patriarchal Attitude Inventory), 결혼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 의사소통 척도를(Communication Inventory)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는 t 검증, A NOVA, 상관분석,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부장적 태도, 효율적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가부장적 태도 전체와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가부장적 태도의 하위 영역 중 가족의 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에서 의사소통 일치도와 의사소통 개방도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상관은 없었으며,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와 결혼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의사소통의 하위 영역 중 의사소통 일치도, 의사소통 개방도, 의사소통 정도가 선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의 결혼만족도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더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둘째, 가부장적 태도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가부장적 태도와 의사소통의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효율적 의사소통이 가부장적 태도의 하위영역 중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에서 긍정적 영향력이,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에서 부정적 영향력을 보였다.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와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효율적 의사소통의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 개방도와 의사소통 일치도 순으로 결혼만족도를 예언해 주었다.

셋째: 가부장적 태도에 있어서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증을 한 결과,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혼만족도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효율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결과, 가부장적 태도와 효율적 의사소통,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만족도에서 매개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결혼만족도와 효율적 의사소통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 일치도와 의사소통 개방도에서 완전매개 효과가, 의사소통 정도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부장적 태도 하위영역으로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영역이 선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을 지지해 주지 않으며, 결혼만족도에서 직접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더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가부장적 태도, 결혼만족도, 효율적 의사소통**

# 목 차

|                                 |    |
|---------------------------------|----|
| 제 1 장 서 론 .....                 | 1  |
| 1 연구의 필요성 .....                 | 4  |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 5  |
| 1 황혼이혼 .....                    | 5  |
| 1) 황혼이혼의 개념 .....               | 5  |
| 2) 황혼이혼의 요인 .....               | 6  |
| 3)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    | 8  |
| 2 의사소통 .....                    | 10 |
| 1) 의사소통의 개념 .....               | 10 |
| 2) 부부간 의사소통과 노년기 부부의 의사소통 ..... | 11 |
| 3) 가부장적 태도와 의사소통의 관계 .....      | 12 |
| 4)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       | 13 |
| 3 결혼만족도 .....                   | 14 |
| 1) 결혼만족도의 개념 .....              | 14 |
| 2) 기혼노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   | 15 |
| 3) 남, 녀 간 가부장적 태도의 차이 .....     | 16 |
| 4) 가부장적 태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   | 17 |
| 제 3장 연구문제 및 가설 .....            | 19 |
| 제 4장 연구방법 .....                 | 20 |

|       |                  |    |
|-------|------------------|----|
| 1     | 연구방법             | 20 |
| 1     | 연구대상             | 20 |
| 2     | 측정도구             | 22 |
| 3     | 연구모형             | 24 |
| 4     | 자료의 분석           | 25 |
| 제 5장  | 연구결과             | 26 |
| 1.    | 변수의 구성 타당성 및 신뢰성 | 26 |
| 2.    |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 28 |
| 3.    |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 30 |
| 4.    | 인구통계변수별 차이분석     | 33 |
| 5.    | 가설검증             | 36 |
| 1)    | 주효과 가설검증         | 36 |
| 2)    | 매개효과 가설검증        | 42 |
| 제 6 장 | 결 론              | 51 |
| 1     | 연구결과의 요약         | 51 |
| 2     | 연구의 의의           | 55 |
| 3     |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56 |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  |    |
|--|----|
| [표5-1] 인구통계학적변인 .....                                      | 21 |
| [표5-2] 측정변수의 신뢰계수 .....                                    | 28 |
| [표5-3]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                                  | 29 |
| [표5-4] 변수들의 상관관계표 .....                                    | 31 |
| [표5-5] 성별에 따른 변수값의 차이 .....                                | 35 |
| [표5-6] 연령에 따른 변수값의 차이 .....                                | 36 |
| [표5-7] 가부장적태도가 효율적 의사소통전체에 미치는 영향 .....                    | 37 |
| [표5-8] 가부장적 태도가 효율적 의사소통 하위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 .....              | 39 |
| [표5-9] 가부장적 태도와 효율적 의사소통이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 41 |
| [표5-10]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효율적 의사소통전체의<br>매개효과 ..... | 45 |
| [표5-11]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정도의 매개효과              | 46 |
| [표5-12]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일치도의<br>매개효과 .....    | 48 |
| [표5-13]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개방도의<br>매개효과 .....    | 50 |
| [표5-14] 효율적 의사소통에 대한 요인분석 .....                            | 74 |
| [표5-15] 가부장적 태도의 설문항목 .....                                | 76 |
| [표5-16] 결혼만족도에 대한 설문항목 .....                               | 78 |
| [표5-17] 의사소통에 대한 설문항목 .....                                | 79 |

## 그림 목차

|                     |    |
|---------------------|----|
| [그림 4-1] 연구모형 ..... | 28 |
|---------------------|----|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결혼생활이 20년 이상이고 연령대로 65세 이상의 노년부부의 이혼, 이른바 황혼이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황혼이혼의 특징은 대부분 여성이 남성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청구자의 80%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생 남편의 외도와 구타에 시달리고 남편의 그늘에서 숨죽이던 여성들이 남편이 위세를 상실한 때에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최근의 황혼이혼은 여성들이 가부장제 지배 이데올로기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에 비해 남성들의 성차별적인 가치관 태도가 변화하지 않고 있어서 황혼이혼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년 후, 이혼의 증가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황혼이혼의 원인을 ‘여권신장’을 주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남자들의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자신의 권익을 찾겠다는 여자들의 주장이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 ‘가부장이란 가장 곧 가족의 우두머리’를 말하며 가부장제란 가장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배가 가능한 체제를 말한다. 우리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가부장제에 의해 지배되어 왔으며 남편의 강압이나 외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독점 등이 가부장적 권력의 구체적 발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저 출산율과 노령인구의 증가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황혼이혼의 증가는 남, 여를 불문하고 여러 가지 적응문제, 노인문제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인 가족해체 현상으로 대책이 시급함에도 황혼이혼이 대개 합의에 의해 진행되므로 원인 등이 알려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만 되고 있을 뿐 연구의 주제로 충실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혼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황혼이혼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연구인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00)에서 황혼이혼의 원인을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다가 자녀가 출가한 후에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분출되어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경제적 보상심리로 해석하였다.

그 외, 국내 연구로 한국사회의 특수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성별간의 차이나 가부장적인 한국 가족문화 속에서 이혼결정 양상을 분석한 연구(이재경, 2000; 곽배희, 2001) 및 이혼의도의 예측변인들로서 비교수준, 배우자에 대한 애정, 부부간 의사소통, 결혼만족, 결혼관계의 개입과 투자,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 주변사람들의 영향 등을 다룬 연구(이경성, 2001)가 있으며, 노인들의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박영애, 2006)가 시도되어져 왔다.

국의 연구로는 이혼으로 이끌었던 주된 원인을 구술자 입장에서 바라본 연구(Weingarten, 1988a)와 여성 노인의 이혼 경험 및 사회적 현상의 변화(Cain, 1988; Blatter & Jacobsen, 1993; Marylyn, 1996), 이혼한 노인들의 복지 상태에 대한 연구(Hennon & Burton, 1981; Atlee & Gene, 2000) 및 황혼 이혼한 노인들의 심리적 재적응을 위한 방안모색(Judith, Jamia & Carol, 2006) 등 황혼 이혼의 원인규명과 그 이후의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및 문제해결 방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황혼이혼의 이혼사유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을 거론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보상심리를 이혼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한(Naohiro, Ogawa & John 1994, 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00) 연구가 있다. 또, 사회 문화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 중 종교와 가족문화 등 신념체계가 황혼이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종교의 경우, 이혼이 엄격하게 금지된 가톨릭 교인들의 이혼이 개신교나 여타 종교인들의 이혼율보다 적다고 밝혔다(Lawton & Regina, 2001). 특히 황혼이혼의 결정 요인들을 가부장적인 가족구조를 거부하고 자기 찾기를 위

한 것으로 밝힌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Namkee, 1995; Robb, 2004).

선행연구에서 황혼 이혼의 원인을 오늘날의 부부관계가 전통적인 수직관계에서 부부평등의 수평관계로의 변화로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부관계의 만족이 결혼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John M. Gottman은 행복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의 깊은 우정이며 우정에 입각한 원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부부간의 어떠한 갈등도 해결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현대의 부부관계에서는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원만한 결혼관계의 유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된다고 주장하였다(강희정, 1995).

국의 논문에서도 부부간에 의사소통 상에 문제가 있거나 파괴적 언쟁이 잦을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나 성적 매력, 개입, 우정과 신뢰를 손상시켜 결혼생활을 불행하게 하고 이혼에 이르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Scott, Howard, Michelle & Leber, 1995)고 밝혔다. 이것은 평등한 부부 관계를 지향하는 현대 부부관계에서 부부간의 효율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적인 부부 관계에서는 남녀 간 권위구조가 과거 상당히 유지되었고, 의사소통이 적은 편으로 지적되었다(서병숙, 2000). 국내 연구에서도 의사소통에서의 문제가 결혼만족과 이혼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들에서 입증되었다(이경성,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가부장적 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매개변인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의 가치규범이 가부장제의 전통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남성들의 성차별적인 태도가 지배체계의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갈등요인으로 인해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영향을 받고 미래의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불만족하고 있으나 결혼생활을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종결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게 만드는 변인인 의사소통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자는 65세 이상 기혼 남, 녀 노인을 대상으로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 효율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가부장적 태도를 가진 노인들에게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결혼생활을 강화시키고 이혼을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며 부부교육이나 치료 및 상담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황혼 이혼

#### 1) 황혼이혼의 개념

가족주기 상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부부만의 생활로 돌아가는 시기인 노년기, 즉 결혼생활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의 노년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본 논문에서는 황혼이혼<sup>1)</sup>으로 보고자 한다. ‘2010년 이혼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은 5년 째 감소를 하고 있는 반면에 동거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9.1%에서 2004년 18.3%로 9년간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며, 2010년에 23.8%로 나타났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혼이 2006년 3,071건, 2007년 3,481건에서 2008년 4,409(통계청, 200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노인 측에서 제기하는 이혼 청구 소송이 주류를 이룬다(김재엽, 김희수, 2003; pp. 52).

#### 2) 황혼이혼의 요인

##### (1). 개인적 요인

황혼이혼에서 주목할 점은 결혼 초기에 이혼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황혼기

---

1) 황혼이혼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혼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노년이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황혼이혼이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법이나 제도 차원에서 쓰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노년기 이혼의 특징상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혼충격 정도는 동거의 지속기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성영식, 2000)하여 황혼이혼의 개념을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들의 이혼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황혼이혼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2005, 성영식).

까지 참고 산 여성들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황혼이혼을 결심한 여성은 이미 성인기부터 가정에서 남편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등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수반하고 있었을 가능성과 심리, 사회적 발달단계를 건강하게 거치지 못했을 가능성,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2) 가족적 요인

이혼을 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자녀의 독립으로 부담감에서 벗어나 탈출구가 될 수 있는데, 부부관계가 견고하지 못하고 자녀 양육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갈등을 피해왔던 가족의 경우, 갈등을 막던 막내 자녀의 독립으로 갈등이 밖으로 분출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부부는 이 시기에 결혼에 대한 의미를 재검토하게 된다는 것이다.

## (3) 사회구조적 요인

가부장제 체제에 의해 오랫동안 지배 받아온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가족 내에서 항상 차별 받고 억압당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져 왔으며 여성에게 ‘결혼’은 ‘편견과 억압 속의 분절된 삶’이며 여성을 남성에게 소속 시키고 옹아매는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 특히 호주제가 이러한 결혼을 통한 여성의 속박을 강하게 명시해 주고 있으며 여성이 가정 내에서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이러한 현실을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적 종속은 황혼이혼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치명적 상황을 이끈다. 그러나 최근의 황혼이혼은 여성들이 이러한 가부장적 지배 이데올로기에 반기를 든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에 비해 남성들은 가부장제를 고수하고 있어 황혼이혼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이혼 관련 법 조항들이 개정 되었는데, 이중 개정된 가족법(1990)인 여성의 자녀 양육권,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여성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어 이혼

후에도 독립할 배경이 조성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에 전반적인 사회병리현상으로 확산되어 광범위하게 일반화되어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 여성계에서 가정폭력을 폭력범죄와 같이 공권력이 개입해야 한다고 하여 ‘가정폭력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부부 별 산제, 재산 분할 청구권 신설, 상속세 개정 등을 들 수 있으며, IMF의 대량실업 사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 내의 불화를 불러일으키는 촉발사건으로 작용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대부분의 고령자들의 명예퇴직으로 황혼이혼이 더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컸으며 이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혼에 이르는 간접적인 원인일 뿐이며 실제로는 경제 갈등으로 인한 마찰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과거에는 결혼은 정상적이고 이혼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원화시켜 부정적이고 일탈적인 행위로만 보아왔고, 현재에도 이러한 인식이 없지는 않지만 이혼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런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황혼이혼을 했거나 하려고 하는 여성들은 결혼했을 당시와 현재의 사회적 인식이 다를 가능성이 많다. 즉, 결혼 당시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서 이혼하고 싶어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참고 살아 왔지만, 현재에 이르러 새롭게 변화된 긍정적인 인식들을 접하게 되면서 새롭게 이혼을 결정하게 되고 결혼 초의 결정보다 쉽게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황혼이혼의 원인을 제시한 국내, 국외의 선행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00)의 보고서에서는 황혼 이혼을 자신의 삶에 대한 경제적 보상심리로 밝혔으며, 일본의 연구(Naohiro Ogawa & John 1994) 에서도 역시 경제적 보상 심리를 이혼의 주된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 기혼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이혼 장애(어려움) 요인이 많을수록, 부부들이 위기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구혜경·

유영달, 2008) 나타났다. 국외 연구를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된 이혼 사

유로 거론 되는 배우자의 폭력과 외도를 제시한 연구도 있으며(Weingarten, 1988a), 결혼의 지속과 이혼에 따르는 비용과 이득을 비교해 보고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때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결혼만족도가 낮고 이혼하는 것의 어려움(장애)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도 다른 매력적 대안이 없는 한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힌 연구도 있다(Sweeney, 2002, p.413-414). 그 외에도 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 중 많은 연구들이 종교와 가족문화 등 신념체계가 황혼이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종교의 경우, 이혼이 엄격하게 금지된 가톨릭 교인들의 이혼이 개신교나 여타 종교인들의 이혼율 보다 적다(Lawton & Regina, 2001)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들에서 종교적 배경 중 가톨릭 배경의 노인들의 이혼율과 여타 종교 배경의 노인들의 이혼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Mariah & Jonathan, 2009; Birchler et al., 1998) 상반된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국내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혼의 결정 요인들을 가부장적인 가족구조를 거부하고 자기 찾기를 위한 것으로 밝힌 연구(Namkee, 1995; Robb, 2004)는 가부장적 태도가 황혼이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3)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가부장중심 태도란 부인과 남편은 남편이 가정을 지배하기를 기대(Nock, 1998) 하는 것이고, 가장인 남편에게 가정의 중심적 권한과 최고 지위를 주는 것을 가족원, 특히 부부가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역할 태도는 가부장적 전통을 중시하는 전통적 태도와 평등적인 역할을 선호하는 근대적 태도로 분류되며 남편은 근대적일수록(Amoto & Boothe, 1995; Keith & Schafer, 1980; 이미숙,

1995; 조정문, 1995; 최규련, 1993), 아내는 전통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Amoto & Boothe, 1995; 이미숙, 2000; 강기연, 2000; 재인용, 조정문, 1995).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부인의 주요 역할은 가정관리라고 보는 등 전통적. 보수적일 경우 부부갈등은 높아져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아내의 성역할 태도가 사회적 정형화에 순응하는 전통적. 보수적일 경우 부부갈등은 적어지고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닐 때 부부 모두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Zvonkovic & Schmiede, 1994; Kim, 1992)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남녀평등 사상의 보급, 여성의 교육기회의 증대와 가사 노동의 감소,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여성의 성역할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남편들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부부평등의 가치관을 지향하는 부인과의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정연, 1988). 우리나라는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근대적 성역할 태도가 혼재하고 있어서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역할 기대와 수행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 남성들의 성차별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어 부부관계에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갈등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미래의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해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2. 의사소통

### 1) 의사소통의 개념

정용재(1985)는 의사소통을 언어 또는 비언어적인 상징을 통하여 타인과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하는 상호거래의 과정 및 행동으로 정의 하였고, 이창숙(1988)은 의사소통을 유기체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상징을 통하여 상호느낌과 의미를 교환하며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의사소통에 대해 지적되는 개념을 공통적으로 종합해 보면, 의사소통이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기호를 통하여 서로의 감정, 생각, 느낌,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서로의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상호작용이라 정의할 수 있다.

### 2) 부부간 의사소통과 노년기 부부의 의사소통

우리나라의 부부의사소통은 권위 지향형과 독선형 등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많은 것으로 (송시내, 1998; 유점숙, 1994; 이정순, 1991; 이창숙·유영주, 1988) 나타났는데 이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남아있는 남편 위주의 일방적 의사소통 형태로 보여지며 언어적인 방법보다는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고 대화의 내용도 부부의 직접적인 문제보다 주로 자녀 중심적이고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동원, 1988).

또, 우리나라 부부는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자기 자신을 노출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는 경우가 많아 희노애락(喜怒哀樂)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계획도 혼자서 마음속으로만 간직 하는 경향이 있다(임정빈·지영숙 외,

1995)고 보고되었으며, 이것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란 노인세대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년기의 연장과 자녀들의 독립으로 부부 중심 가족구조의 변화인 부부 만의 ‘빈 둥우리 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두 부부만의 생활시간이 많아지게 되어 노년기 부부의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노년기의 부부는 신혼기, 중년기 보다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대화 시간도 많아지지만 실제로 함께 지내는 시간의 증가가 대화 시간의 증가로 연결 되는지는 의문이다. 한편, 선행 연구에 의하면, 결혼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역할 분담, 갈등해결, 부부관계 유형 그리고 의사소통을 거론 했으며 특히 의사소통은 강력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다(김요완, 2000).

Christensen(1988) 연구에 의하면, 부부의 의사소통 패턴을 긍정적, 부정적, 요구-회피적 패턴으로 나누었는데, 긍정적 의사소통은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과 긍정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반면, 부정적 의사소통은 부부갈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게 하며 분노, 원망, 좌절감의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여 부부관계를 악화시키고 결혼생활의 불만 증가로 이혼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 세 가지 의사소통 패턴 중에서 장, 단기적으로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구-회피 패턴이다. 그 중에서도 아내요구-남편회피 의사소통이 역기능적 결혼생활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윤희, 2000; 장은경, 2001). 이와 같이 의사소통은 부부관계의 중요한 요소이며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예측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3) 가부장적 태도와 의사소통의 관계

가부장적 성역할로 인하여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갈등의 형태는

남편에 의한 아내의 폭력이다. 부부 폭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은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이며(이수정·이혜선·이수경·김현정, 2008; 최선화·김희수, 2007), 심각한 아내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과 신체손상은 개인적인 생존을 위협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로 나타나기도 하고(김현정·이수정, 2007), 결혼관계나 가족관계의 붕괴와 가족해체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남성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경우,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Goldstein, 1986), 이것은 전통적이고 고정된 인식과 태도가 강한 남성일수록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선행연구는 부부 간 대화시간이 길수록 아내 폭력이 감소하고 행복한 부부일수록 의사소통 기회를 많이 가지며 특히 언어적 지지를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Hicks & Platt, 1970). 또한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부부간 의사소통 정도가 높으며(김금옥, 1998),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류경희, 1994).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의 영향으로 발생한 아내 폭력을 완충시켜주고 이혼을 예방하는 개입방법으로 부부간 의사소통 개선이 부부간 관계를 개선시켜 주어 결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 의사소통이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 4)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결혼 생활에서 부부간의 상호작용은 결혼생활의 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중요

한 요인이며, 이러한 부부간의 상호작용의 불일치로 인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불만족이 나타날 수 있다. 부부관계 만족이 낮은 부부들일수록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들의 감정,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을 적게 한다고 하며, 부부 사이의 파괴적인 의사소통과 같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상호작용 보다 더 낮은 관계만족과 더 높은 비율의 이혼이나 부부불화와 관련이 있다(Gottman & Notarius, 2000; Karney & Bradbury, 1995; Markman & Halweg, 1993)고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 비슷한 연구(Stanley, Markman & Whitton, 2002)에서도 의사소통은 부부간의 갈등이나 이혼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그 영향력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부정적인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매우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또, Huston 등(2001)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증가가 부부의 결혼 생활에 문제점이나 이혼을 야기 시킨다고 하였는데, 부정적인 행동의 증가가 이혼의 시기를 예측해 주고 초기에 이혼하는 부부들은 후기에 이혼 하는 부부들 보다 결혼 후 2년 동안 부정적인 행동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불행하면서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은 이혼 하는 부부들보다 부정적인 행동의 증가가 적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 보다 부정적인 행동의 증가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되었다.

그 외에도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할수록 부부의 전반적인 결혼생활의 만족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임승락, 1998), 부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부부관계를 안정되고 굳건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였다(이창숙·유영주, 1988, 재인용). 이와 같이 부부관계의 갈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고 일치하는 의사소통은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였으며,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결과, 문제해결의 합리적인 방법 등이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Jacobson 외,

1970).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 3. 결혼만족도

#### 1) 결혼만족도의 개념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는 부부관계의 주관적인 평가나 태도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193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권정혜, 채규만, 1998). 많은 학자들이 결혼만족도에 대해 정의하였는데, Rice(1979)는 남편과 아내의 개인적 욕구가 서로의 상호 작용을 통해 충족되는 정도를 말하며, 부부간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상대방이 보이는 실제 수행과의 차이에 의해 결혼만족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Hawkins(1968)는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 만족과 기쁨의 주관적 감정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재홍, 박영화, 2005에서 재인용). Lewis와 Spanier(1980)는 한 사람이 가지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그가 실제로 받는 보상의 일치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Lenthall(1977)은 개인의 기대와 결혼의 결과 사이의 비교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는 결혼적응, 결혼안정성, 결혼행복, 결혼의 질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된다(Acitelli, Douvan & Veroff, 1993; Beach et al, 2003, 재인용). 결혼만족도는 매우 복잡한 구성개념으로 여러 연구들에서도 이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에 대해 각기 다른 요인을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nyder(1979)에 의해 개발된 결혼만족도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한 한국판 결혼생활 만족도(Korean-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K-MSI)에서 정의한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 2) 기혼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한국 사회에서 기혼 노인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그 중 김혜경(1996)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여자노인의 경우 학력이 높고, 종교가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고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고 결혼 생활 연수가 짧을수록 결혼만족도와 뚜렷한 정적상관을 보인다고 하였고,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의사소통효율성, 여가활동의 공유, 은퇴여부로 보았다.

이신숙과 이경주(1999)의 연구에서는 남자노인의 결혼만족도는 교육수준이 높고 노부부만 거주할수록, 경제상태, 사회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결혼만족도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김진영(2005), 최주희(2000)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기술과 문제해결 능력, 자기표현력, 정서표출 기능 등에서 유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관계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오선주, 2000; 강혜숙, 2003), 간혹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승락, 1998; whyte, 1990).

신화용과 조병은(1999)은 남편이 부인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배우자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가 남편과 부인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윤로, 유시순(2003)도 정서적 지지가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여 공통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노인들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지지를 긍정적인 대화 방법을 통해 지지를 해 준다면, 결혼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 3) 남, 녀 간 가부장적 태도의 차이

현대 사회의 가치규범이 성차별적인 전통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남성과 여성간에 도시와 농촌 지방간에 계층 간에 성역할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역할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역할갈등이 많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고 Spanier와 Lewis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즉 특정한 역할유형 보다는 부부 상호간의 역할 태도의 일치, 불일치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부장적인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부부의 성역할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김명숙, 2008)에서 남편은 종교와 형제순위에서, 아내는 직업과 결혼기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의 교육수준은 성역할 태도의 차이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에서 가족수입이 높은 집단이 더 근대적이며, 여성의 경우, 그 경향이 더 현저하다. 결혼만족도와 가족 수입은 거의 정적상관이 있으나, 상류층이 중류층 보다 만족도가 낮다는 결과도 있어, 두 변인 간에 중재변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더 근대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여성의 경우, 그 경향이 더 현저하다.

결혼만족도에서는 남편, 부인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많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그 경향이 크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연령이 낮은 집단이 더 근대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와 가족생활 주기에 대한 연구결과는 결혼 초에 만족도가 제일 높다가 결혼 햇수가 경과할수록 감소하며, 결혼 후기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으로 U자형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남, 녀 노인들의 성역할 태도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4) 가부장적 태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를 다룬 일부 선행 연구들은 부부간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들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상태, 결혼지속연수, 동거가족형태, 종교 등을 다루었다.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에서는 많은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만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유영주, 1978; 이옥진, 1982; 최규련, 1987; 권정혜, 채규만; 1998). 이는 가부장제 전통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남편보다는 부인에게 보다 많은 복종과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허윤정, 1996). 연령별 결혼만족은 연령이 낮거나 신혼기의 부부들이 일관되게 결혼만족이 높다고 알려졌으나, 연령의 증가에 따른 결혼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일관되지 않고 있다. 유영주(1978)와 허윤정(1996)은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만족은 높아진다고 한 반면, 박경자(1981)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모두 연령과 결혼만족과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수준과 결혼만족도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교육수준, 소득수준, 남편의 지위수준이 결혼만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이인수, 유영주; 1986, 김화자, 윤종희; 1991). 또한 절대적 수입보다는 수입에 대한 주관적 만족수준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났다(Lewis, Spanier, 1979; 이동원, 1988).

결혼지속연수와 결혼만족의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고 있다. 이인수와 유영주(1986)는 결혼초기에 만족도가 가장 높고, 첫 아이의 출생 후에 감소를 보이다가 자녀가 청년기에 도달하면서 다시 감소하고 부모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단계에 이르면 결혼만족이 더욱 감소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Gilford(1986)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결혼만족이 점차 증가한다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결혼지속연수에 따른 결혼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송말희, 이정우, 1986; 정현숙, 1994; 김명자, 이옥진, 1982, 재인용). 동거가족 형태를 보면, 김수

현(1999), 윤 영(1990)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종교적 변인에서는 부부가 동일한 종교를 가질 때에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보다 결혼만족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었다(김미숙, 1989).

부부 의사소통과 결혼생활 만족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은 부부간의 대화기술과 문제해결 능력이 결혼생활을 만족스럽게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임을 강조하였다(윤성숙, 1996; Jacobson & Margolin, 1979; Krudson, Sommers, & Golging, 1980; Vincent, Weiss & Brichler, 1975, 재인용). 또한, 부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부부간의 이해, 적응, 만족을 더 촉진시키며(Blood & Woolf, 재인용)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았고(김화자, 윤중희, 1991, 재인용) 결혼관계에서의 대화단절은 부부간의 갈등상황을 유도하는 등(Cavison et al., 1983) 부부간의 의사소통 이해도와 결혼만족도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송말희, 이정우; 1986).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가부장적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여 결혼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부부간의 갈등을 잘 해결하여 황혼이혼 억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노인에게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여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지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Ⅲ. 연구문제 및 가설

기존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정하였는데 주효과(main effect) 가설과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가설이다. 먼저 주효과 가설은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며, 매개효과 가설은 가부장적 태도가 효율적 의사소통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연구문제 1. 가부장적 태도가 의사소통,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가설 1-1. 가부장적 태도가 높을수록 효율적 의사소통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 1-2. 가부장적 태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1-3. 효율적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연구문제 2. 가부장적 태도가 효율적 의사소통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2-1 가부장적 태도는 효율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V.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인근지역, 전북 군산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 녀 노인 2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배부는 238 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으로 선정된 임의표본 방식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아는 교회 친구, 친척들을 통해 아는 사람에게 배부하고, 그 외 경로당, 교회,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배부하고 수거되었다. 한편 설문조사 기간은 2011년 3월 8일에서 4월 8일 까지 약 30 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총238 부가 배부되었으며, 그 중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28부를 제외한 210부가 본 조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연구대상의 인구통계적 분포는 <표 5-1>에 제시되어 있다.

.<표 5-1> 인구통계학적 변인

|          |                         | 사례 수    | %          |
|----------|-------------------------|---------|------------|
| 성별       | 남성                      | 110     | 52.4       |
|          | 여성                      | 100     | 47.6       |
| 연령별      | 60대                     | 98      | 46.7       |
|          | 70대                     | 95      | 45.2       |
|          | 80대 이상                  | 17      | 8.1        |
| 결혼상태     | 결혼                      | 166     | 79.0       |
|          | 별거                      | 4       | 1.9        |
|          | 이혼                      | 2       | 1.0        |
|          | 사별                      | 34      | 16.2       |
|          | 재혼                      | 4       | 1.9        |
| 결혼기간     | 30년 이하                  | 19      | 9.0        |
|          | 31-40년                  | 89      | 42.4       |
|          | 41-50년                  | 78      | 37.1       |
|          | 51년 이상                  | 24      | 11.4       |
| 거주형태     | 독신가구                    | 16      | 7.6        |
|          | 부부가구                    | 73      | 34.8       |
|          | 부부+ 자녀                  | 86      | 41.0       |
|          | 한부모+ 자녀                 | 20      | 9.5        |
|          | 생활시설(공동체가정 등)<br>3세대 가구 | 2<br>13 | 1.0<br>6.2 |
| 자녀수      | 1명                      | 8       | 3.8        |
|          | 2명                      | 54      | 25.7       |
|          | 3명                      | 86      | 41.0       |
|          | 4명 이상                   | 61      | 29.0       |
|          | 없음                      | 1       | 0.5        |
| 학력       | 무학                      | 14      | 6.7        |
|          | 초졸/중퇴                   | 36      | 17.1       |
|          | 중졸/중퇴                   | 32      | 15.2       |
|          | 고졸/중퇴                   | 54      | 25.7       |
|          | 초대졸/중퇴                  | 13      | 6.2        |
|          | 대졸/중퇴                   | 45      | 21.4       |
|          | 대학원졸/중퇴                 | 16      | 7.6        |
| 종교       | 불교                      | 33      | 15.7       |
|          | 천주교                     | 21      | 10.0       |
|          | 기독교                     | 116     | 55.2       |
|          | 유교                      | 1       | 0.5        |
|          | 없음                      | 37      | 17.6       |
|          | 기타                      | 2       | 1.0        |
| 월평균 소득수준 | 50만원 미만                 | 59      | 28.1       |
|          | 50만원-100만원 미만           | 38      | 18.1       |
|          | 100만원-200만원 미만          | 68      | 32.4       |
|          | 200만원-300만원 미만          | 29      | 13.8       |
|          | 300만원-500만원 미만          | 13      | 6.2        |
| 500만원 이상 | 3                       | 1.4     |            |

## 2. 측정도구

### 1) 한국 전통 가치관 척도(Korean-Patriarchal Attitude Inventory)

한국 전통가치관 척도는 채규만(1990)이 개발한 척도로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리커트 척도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6점 까지 배열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부장적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으로 가족 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14문항), 자녀 양육 가치관(5문항), 정서 표현과 가족 결속력(6문항), 여성의 역할(4문항)이다. 역채점 문항은 1, 14, 20, 25, 26, 28 총 6개 문항이다.

### 2) 한국판 결혼생활만족도 척도(Korean-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는 Snyder(1979)가 다차원 척도로 개발한 결혼만족도 검사를 권정혜와 채규만(1998)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표준화한 것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다. 총 14개의 하위체계로 이루어진 ‘K-MSI’는 두 개의 타당도 척도(비일관적 반응 척도, 관습적 반응척도)와 한 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전반적 불만족 척도), 그리고 결혼생활의 세부 영역별 불만족을 측정하는 11개 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혼에 대한 불만족 정도인 전반적 불만족 척도(Global Distress Scale) 22문항을 사용하였고, 내적 일치도 계수는 .92였다. 결혼만족도의 평균은 결혼불만족도로 측정하였으며 설문항목에 있어서 예, 아니오 응답을 1과 0으로 주어 응답자별로 합산된 값을 평균화 한 것으로 평균

이 높은 것은 결혼생활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며, 평균이 낮은 것은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 3) 의사소통 척도(Communication Inven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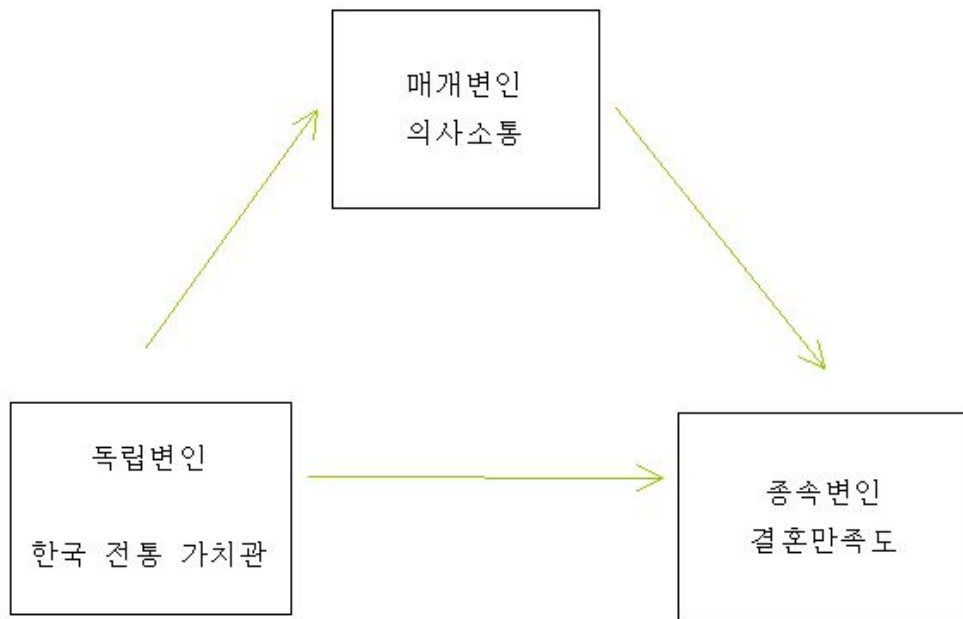
선행연구(김영나, 2001; 김은숙, 1983; 심혜선·이정우, 2001; 하상희·이정우, 1996; Bienvenu, 1970; Powers & Hutchinson, 1979)를 토대로 부부간 의사소통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총 26문항을 선정하여 재구성하였다. 선정한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추출한 요인은 의사소통 정도(7문항), 의사소통 일치도(8문항), 의사소통의 개방도(10문항)로 총 25 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배열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 정도, 일치도,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연구모형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이론 연구들과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의 설정을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이론연구 부분에서 제시된 가부장적 태도를 독립변수로 이용하였고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이용하였다. 또한 효율적 의사소통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림 4-1> 연구모형



#### 4.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Ver 17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분석(Cronbach  $\alpha$ )을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량의 분석을(Frequency, Mean) 실시하였다.
3. 각 변인들(가부장적 태도, 효율적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인구통계 변수별로 결혼불만족도, 가부장적 태도, 효율적 의사소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5.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가부장적 태도가 의사소통,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효율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6. 설문문항의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V. 연구결과

### 1. 변수의 구성타당성 및 신뢰성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수들이 개념적으로 독립적인가(construct validity)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신뢰도(reliability) 측정을 위해서 동일한 측정을 위한 항목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근거한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검토를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 계수를 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1>과 <표 5-2>에 제시되어 있다.

효율적 의사소통의 구성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요인분석시 고려해야할 점은 ① 공분산행렬에 의한 분석인가 혹은 상관행렬에 의한 분석인가 ② 초기요인의 추출 ③ 분석결과의 해석(요인적재치, 고유값, 요인행태행렬, 공통성의 크기, 요인의 이름) ④ 요인값의 활용 ⑤ 신뢰성 검토 등으로 요인의 회전은 요인의 복잡성(complexity), 요인의 양극화(bipolarity) 등으로 인하여 요인의 행태행렬이 단순성(simplicity)을 상실했을 때 회전을 고려해야 한다(성삼경·최종후·이재창,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을 요인으로 묶어냄에 있어 정보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많은 변수를 가능한 적은 요인으로 줄이고, 요인구성이 복잡하고 요인간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초의 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요인의 회전이 있게 되는 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0으로 가정하여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 방법 중 배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값은 0.4이상인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효율적 의사소통의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구분된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효율적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정도, 의사소통 일치도 그리고 의사소통 개방도로 구분하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요인으로 묶어졌으며 적재값 누적%도 68.22%를 보이고 있으며 각 설문항목의 적재치 역시 기준 정도는 .4 이상의 값으로 보이고 있다. 다만 효율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설문항목 16번, 18번 항목의 경우 적재치의 값이 너무 낮은 관계로 이들 두 항목을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변수들의 신뢰성(신뢰도: reliability)를 검증하기 위하여 응답의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조사하는 방법인 Cronbach'  $\alpha$  값을 계산하였다. <표 5-2>에서 볼 수 있듯이 변수의 Cronbach'  $\alpha$  값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alpha$  계수가 .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채서일, 1997). Cronbach'  $\alpha$  값을 보면 먼저 효율적 의사소통의 변수들인 의사소통 전체, 의사소통 정도, 의사소통 일치도, 의사소통 개방도는 모두 .8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부장적 태도는 가부장적 태도 전체,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와 정서표현과 가족결속력이 .6 이상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녀양육 가치관과 여성의 역할은 신뢰계수가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이고 있었다.

〈표 5-2〉 측정변수의 신뢰계수

|          | 구 분                     | Cronbach' α |
|----------|-------------------------|-------------|
| 효율적 의사소통 | 의사소통 정도                 | .881        |
|          | 의사소통 일치도                | .927        |
|          | 의사소통 개방도                | .948        |
|          |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             | .957        |
| 가부장적 태도  |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br>가부장적 태도 | .800        |
|          | 정서표현과 가족 결속력            | .637        |
|          | 가부장적 태도 전체              | .696        |
|          | 가부장적 태도 전체A             | .717        |

- 1) 신뢰계수에 있어서 가부장적 태도 전체는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정서표현과 가족결속력, 자녀양육 가치관, 여성의 역할 등 하위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결과이며 가부장적 태도 전체A는 자녀양육 가치관과 여성의 역할을 제외하고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정서표현과 가족결속력 두 하위 변수만을 포함한 결과이다. 이는 자녀양육 가치관과 여성의 역할 두 변수의 신뢰계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척도가 젊은층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본 논문 연구한계에서 제시하였다.

## 2.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변수의 구성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에 의해 채택한 문항을 기초로 하여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는데 결과는 〈표 5-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종속변수로 설정된 결혼만족도의 경우는 설문항목에 있어서 ‘예’, ‘아니오’ 응답을 1과 0으로 주어 응답자별로 합산된 값을 평균화 한 것으로 측정은 결혼불만족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결혼불만족도 수준은 8.16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해 불만족 하다는 것이며 낮을수록 만족한다는 것이다. 결혼불만족도의 최대값은 22이며 최소값은 0이고 응답자들은 약 8개 정도

의 항목에서 ‘예’라는 응답을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가부장적 태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가부장적 태도 전체는 3.87 정도를 보이고 있다. 하위 변수들에 있어서 자녀양육 가치관의 평균값이 다른 변수들인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정서표현과 가족결속력 그리고 여성의 역할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점수는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매개변수로 설정된 효율적 의사소통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는 3.19를 보이고 있다. 하위변수들에 있어서 의사소통 정도와 의사소통 개방도는 3.2 정도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사소통 일치도는 3.07 정도의 값을 보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의사소통 변수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5-3〉 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 변수명                       | 문항수 | 척도(Scale) | 평균   | 표준편차 |
|---------------------------|-----|-----------|------|------|
| 결혼불만족도                    | 22  | 1~2       | 8.16 | 6.59 |
|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               | 23  | 1~5       | 3.19 | .78  |
| - 의사소통 정도                 | 7   | 1~5       | 3.24 | .85  |
| - 의사소통 일치도                | 8   | 1~5       | 3.07 | .86  |
| - 의사소통 개방도                | 8   | 1~5       | 3.26 | .93  |
| 가부장적 태도 전체                | 29  | 1~6       | 3.87 | .53  |
| -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br>가부장적 태도 | 14  | 1~6       | 3.98 | .70  |
| - 자녀양육 가치관                | 5   | 1~6       | 4.34 | .69  |
| - 정서표현과 가족 결속력            | 6   | 1~6       | 3.68 | .85  |
| - 여성의 역할                  | 4   | 1~6       | 3.50 | .56  |

주) 결혼만족도의 평균은 결혼불만족도로 측정하였으며 설문항목에 있어서 예, 아니오 응답을 1과 0으로 주어 응답자별로 합산된 값을 평균화 한 것으로 평균이 높은 것은 결혼생활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며, 평균이 낮은 것은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 3.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5-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결혼불만족도와 가부장적 태도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부장적 태도 전체와 결혼불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r=-.018$ , n.s). 하위변수들에 있어서도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결혼불만족도와 효율적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와 결혼불만족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732$ ,  $p<.001$ ). 하위변수들에 있어서 모든 하위변수들도 결혼불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의사소통 정도( $r=-.517$ ,  $p<.001$ ), 의사소통 일치도( $r=-.698$ ,  $p<.001$ ), 의사소통 개방도( $r=-.697$ ,  $p<.001$ )가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관관계를 기초로 보면 효율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결혼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부장적 태도 변수들과 효율적 의사소통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부장적 태도 전체와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002$ , n.s). 하위 변수들 중에서는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144$ ,  $p<.05$ ). 가부장적 태도 하위변수들과 효율적 의사소통 하위변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는 의사소통 일치도( $r=.187$ ,  $p<.01$ ), 개방도( $r=.193$ ,  $p<.01$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역할은 의사소통 개방도( $r=-.136$ ,  $p<.05$ )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변수들의 상관관계표

| 구 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결혼불만족도               | 1.000        |             |             |             |            |             |             |             |             |
| 2.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          | -.732<br>*** | 1.000       |             |             |            |             |             |             |             |
| 3. 의사소통 정도              | -.517<br>*** | .802<br>*** | 1.000       |             |            |             |             |             |             |
| 4. 의사소통 일치도             | -.698<br>*** | .911<br>*** | .589<br>*** | 1.000       |            |             |             |             |             |
| 5. 의사소통 개방도             | -.697<br>*** | .914<br>*** | .578<br>*** | .791<br>*** | 1.000      |             |             |             |             |
| 6. 가부장적 태도 전체           | .037         | .002        | -.058       | .038        | .016       | 1.000       |             |             |             |
| 7.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 -.135        | .144<br>*   | -.025       | .187<br>**  | .193<br>** | .767<br>*** | 1.000       |             |             |
| 8. 자녀양육 가치관             | .061         | -.045       | -.062       | -.039       | -.021      | .671<br>*** | .304<br>*** | 1.000       |             |
| 9. 정서표현과 가족 결속력         | .073         | .005        | -.031       | .054        | -.014      | .806<br>*** | .535<br>*** | .363<br>*** | 1.000       |
| 10. 여성의 역할              | .113         | -.124       | -.053       | -.129       | -.136<br>* | .590<br>*** | .330<br>*** | .250<br>*** | .264<br>*** |

주) \* :  $p < .05$ , \*\* :  $p < .01$ , \*\*\* :  $p < .001$ , 2-tailed test

인구통계적 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인구통계 변수들을 통제 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표 5-4〉에 제시되어 있다.

편 상관 분석 결과, 인구통계 변수를 통제한 가부장적 태도 전체와 결혼불만족도와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r = -.034$ , n.s) 않았으며, 하위변수들에 있어서도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결혼불만족도와 효율적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와 결혼불만족도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691$ ,  $p < .001$ ). 하위변수들에 있어서 모든 하위변수들도 결혼불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의사소통 정도

( $r=-.484$ ,  $p<.001$ ), 의사소통 일치도( $r=-.649$ ,  $p<.001$ ), 의사소통 개방도( $r=-.697$ ,  $p<.001$ )가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관관계를 기초로 보면 효율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결혼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부장적 태도 변수들과 효율적 의사소통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부장적 태도 전체와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069$ , n.s), 하위 변수들 중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175$ ,  $p<.05$ ). 가부장적 태도 하위변수들과 효율적 의사소통 하위변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는 의사소통 일치도( $r=.197$ ,  $p<.01$ ), 의사소통 개방도( $r=.220$   $p<.01$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변수들의 상관관계표(인구통계변수 통제)

| 구 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결혼불만족도               | 1.000        |             |             |             |            |             |             |             |           |
| 2.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          | -.691<br>*** | 1.000       |             |             |            |             |             |             |           |
| 3. 의사소통 정도              | -.484<br>*** | .796<br>*** | 1.000       |             |            |             |             |             |           |
| 4. 의사소통 일치도             | -.649<br>*** | .906<br>*** | .580<br>*** | 1.000       |            |             |             |             |           |
| 5. 의사소통 개방도             | -.662<br>*** | .908<br>*** | .557<br>*** | .776<br>*** | 1.000      |             |             |             |           |
| 6. 가부장적 태도 전체           | -.034        | .069        | .012        | .088        | .073       | 1.000       |             |             |           |
| 7.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 -.157<br>*   | .175<br>*   | .021        | .197<br>**  | .220<br>** | .744<br>*** | 1.000       |             |           |
| 8. 자녀양육 가치관             | .017         | -.008       | -.039       | -.005       | .017       | .651<br>*** | .258<br>*** | 1.000       |           |
| 9. 정서표현과 가족 결속력         | -.015        | .085        | .050        | .125        | .050       | .767<br>*** | .485<br>*** | .303<br>*** | 1.000     |
| 10. 여성의 역할              | .074         | -.093       | -.008       | -.115       | -.110      | .548<br>*** | .276<br>*** | .203<br>**  | .172<br>* |

주) \* : p<.05, \*\* : p<.01, \*\*\* : p<.001, 2-tailed test

#### 4. 인구통계 변수별 차이분석

인구통계 변수인 성별, 연령별로 결혼불만족도, 가부장적 태도 변수들 그리고 효율적 의사소통 변수들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t-검정을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t-검정시,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성을 충족해야 하고, 관찰치들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두 독립표본에 의하여 모집단이 평균치차에 대한 검정을 할 경우, 두 모집단의 분산은 균일해

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분산분석법에서 요구되는 가정 역시 t-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이다. 이 경우에도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 정규성의 가정에서 이탈되었을 때에는 비모수적 검정법을 적용해야 한다(성삼경 외, 1993). 본 연구의 경우 독립성과 정규성, 등분산성 측면에서는 랜덤포본(random sample)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t-검정과 분산분석을 위한 가정은 충족되었다고 본다.

## 1) 성별 차이분석

성(性)별에 따라 변수들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부장적 태도에 있어서 남, 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변수들 중 결혼불만족도, 의사소통 정도, 의사소통 일치도, 의사소통 개방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불만족도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효율적 의사소통 변수들인 의사소통 정도, 의사소통 일치도, 의사소통 개방도에 있어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효율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이는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에서는 일관적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만족이 높다(유영주, 1978; 이옥진, 1982; 최규련, 1987; 권정혜, 채규만; 1998)고 보고된 많은 연구결과의 주장을 입증하였고, 이런 결과는. 가부장제 전통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남편보다는 부인에게 보다 많은 복종과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정의한 견해와 일치한다(허윤정, 1996).

[표 5-5] 성별에 따른 변수값의 차이(t-test)

| 종속변수        |              | 독립변수 | 성(性)      |           | 평균<br>(n=210) | t값        |
|-------------|--------------|------|-----------|-----------|---------------|-----------|
|             |              |      | 남성(n=110) | 여성(n=100) |               |           |
| 결혼불만족도      |              |      | 5.71      | 10.85     | 8.16          | -6.113*** |
| 효율적<br>의사소통 | 의사소통 정도      |      | 3.38      | 3.08      | 3.24          | 2.617**   |
|             | 의사소통 일치도     |      | 3.33      | 2.79      | 3.07          | 4.765***  |
|             | 의사소통 개방도     |      | 3.50      | 2.99      | 3.26          | 4.083***  |
| 가부장적<br>태도  | 가족구성원에 대한 태도 |      | 4.03      | 3.93      | 3.98          | 1.006     |
|             | 자녀양육 가치관     |      | 4.28      | 4.41      | 4.34          | -1.382    |
|             | 정서표현과 가족 결속력 |      | 3.61      | 3.75      | 3.68          | -1.156    |
|             | 여성의 역할       |      | 2.78      | 2.89      | 2.83          | -1.158    |

주) \* : p<.05, \*\* : p<.01, \*\*\* : p<.001

## 2) 연령별 차이분석

연령에 따라 변수들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은 60대, 70대 그리고 8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는데 의사소통 정도, 가족구성원에 대한 태도, 정서표현과 가족결속력 그리고 여성의 역할에 있어서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의사소통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구성원에 대한 태도는 70대와 80대 이상이 6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서표현과 가족 결속력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역할에 있어서는 8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좀 더 가부장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6] 연령에 따른 변수값의 차이(ANOVA)

| 종속변수        |              | 독립변수 | 연령             |               |                 | 평균<br>(n=210) | F값      |
|-------------|--------------|------|----------------|---------------|-----------------|---------------|---------|
|             |              |      | 60대<br>(n=122) | 70대<br>(n=74) | 80대이상<br>(n=14) |               |         |
| 결혼불만족도      |              |      | 7.79           | 8.57          | 9.21            | 8.16          | .513    |
| 효율적<br>의사소통 | 의사소통 정도      |      | 3.35           | 3.13          | 2.86            | 3.24          | 3.102*  |
|             | 의사소통 일치도     |      | 3.13           | 2.98          | 3.06            | 3.07          | .659    |
|             | 의사소통 개방도     |      | 3.28           | 3.26          | 3.09            | 3.26          | .257    |
| 가부장적<br>태도  | 가족구성원에 대한 태도 |      | 3.84           | 4.17          | 4.17            | 3.98          | 6.046** |
|             | 자녀양육 가치관     |      | 4.28           | 4.43          | 4.40            | 4.34          | 1.195   |
|             | 정서표현과 가족 결속력 |      | 3.53           | 3.83          | 4.13            | 3.68          | 5.234** |
|             | 여성의 역할       |      | 2.80           | 2.81          | 3.25            | 2.83          | 3.078*  |

주) \* : p<.05, \*\* : p<.01, \*\*\* : p<.001

## 5. 가설 검증

### 1) 주효과 가설검정

#### (1) 가부장적 태도가 효율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먼저 인구통계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효율적 의사소통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 변수들은 회귀분석을 위해 더미(dummy) 처리하였으며 효율적 의사소통은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 의사소통 정도, 의사소통 일치도, 의사소통 개방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가부장적 태도 변수들인 가부장적 태도 전체,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자녀양육 가치관, 정서표현과 가족결속력 그리고 여성의 역할을 인구통계 변수들과 함께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실시한 분석결과는 [표 5-7]에 제시되었고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제시하였다<sup>2)</sup>. 가부장적 태도 전체의 영향력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091, n.s), 가부장적 태도 하위변수들 중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와 여성의 역할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데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는 긍정적 영향력을(beta=.232, p<.05), 여성의 역할은 부정적 영향력(beta=-.146, p<.05)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부장적 태도가 높을수록 효율적 의사소통은 낮아질 것이다.”는 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5-7] 가부장적 태도가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효율적 의사소통 |          |         |         |          |          |          |          |
|----------------|----------|----------|---------|---------|----------|----------|----------|----------|
|                | 전체       |          | 의사소통 정도 |         | 의사소통 일치도 |          | 의사소통 개방도 |          |
|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 통제변수           |          |          |         |         |          |          |          |          |
| 성별             | .243**   | .191*    | .076    | .063    | .318***  | .263***  | .229**   | .166*    |
| 연령             | .041     | .070     | .008    | .018    | .048     | .074     | .047     | .085     |
| 교육수준           | .020     | .027     | -.012   | -.009   | .052     | .059     | .011     | .017     |
| 가부장적 태도        |          |          |         |         |          |          |          |          |
| 가족구성원에 대한 태도   |          | .194*    |         | .019    |          | .193*    |          | .273**   |
| 자녀양육 가치관       |          | -.037    |         | -.039   |          | -.048    |          | -.013    |
| 정서표현과 가족 결속력   |          | .044     |         | .079    |          | .087     |          | -.038    |
| 여성의 역할         |          | -.238*** |         | -.116   |          | -.246*** |          | -.252*** |
| R <sup>2</sup> | .134     | .220     | .112    | .129    | .153     | .249     | .097     | .207     |
| F-Value        | 3.429**  | 4.219*** | 2.802** | 2.230** | 3.998*** | 4.974*** | 2.372*   | 3.921*** |

주1) \* : p<.05, \*\* : p<.01, \*\*\* : p<.001

주2) 통제변수 중 연령은 실제 값이며 성별은: 남성 1 여성 0,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1 초대졸 이상 0 으로 더미(dummy) 처리하였음

주3) 인구통계 변수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결혼기간, 거주형태, 자녀수, 교육정도, 종교 그리고 월 평균 소득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인구학적 통제변수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대한 것만을 도표로 보여주었다.

2) 독립 변수들간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어 다중공선성이 우려되므로 분산확대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변수에서 이군희(2004)가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기준 값으로 제시한 5를 넘는 것은 없었다.

다음으로 효율적 의사소통 하위 변수들에 대한 영향력은 [표 5-8]에 제시되어 있다. 의사소통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가부장적 태도 전체(beta=.034, n.s) 와 가부장적 태도 하위 변수들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의사소통 일치도에 있어서는 가부장적 태도 전체 변수의 영향력은 없었으나(beta=.107, n.s), 가부장적 태도 하위변수들 중 가족구성원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영향력을(beta=.237,  $p<.01$ ), 여성의 역할은 부정적 영향력(beta=-.173,  $p<.05$ )을 보였다. 의사소통 개방도에 있어서도 가부장적 태도 전체 변수의 영향력을 없었으나(beta=.092, n.s) 의사소통 일치도와 마찬가지로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는 긍정적 영향력을(beta=.319,  $p<.001$ ), 여성의 역할은 부정적 영향력(beta=-.182,  $p<.05$ )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가부장적 태도 하위 변수들이 효율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에 대한 태도와 여성의 역할이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자녀양육 가치관과 정서표현과 가족결속력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5-8] 가부장적 태도가 효율적 의사소통 하위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결혼불만족도   |          |           |           |
|----------------|------|----------|----------|-----------|-----------|
|                |      | M9       | M10      | M11       | M12       |
| 통계변수           |      |          |          |           |           |
| 성별             |      | -.338*** | -.293*** | -.160**   | -.152**   |
| 연령             |      | -.081    | -.101    | -.050     | -.048     |
| 교육수준           |      | -.074    | -.078    | -.057     | -.056     |
| 가부장적 태도        |      |          |          |           |           |
| 가족구성원에 대한 태도   |      |          | -.209**  |           | -.058     |
| 자녀양육 가치관       |      |          | .015     |           | -.008     |
| 정서표현과 가족 결속력   |      |          | .053     |           | .076      |
| 여성의 역할         |      |          | .136*    |           | -.035     |
| 효율적 의사소통       |      |          |          |           |           |
| 의사소통 정도        |      |          |          | -.106     | -.112     |
| 의사소통 일치도       |      |          |          | -.284***  | -.298***  |
| 의사소통 개방도       |      |          |          | -.350***  | -.335***  |
| R <sup>2</sup> |      | .221     | .267     | .611      | .615      |
| F-Value        |      | 6.255*** | 5.455*** | 25.603*** | 19.184*** |

주1) \* : p<.05, \*\* : p<.01, \*\*\* : p<.001

주2) 통계변수 중 연령은 실제 값이며 성별은, 남성 1 여성 0,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1 초대졸 이상 0 으로 더미(dummy) 처리하였음

주3) 인구통계 변수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결혼기간, 거주형태, 자녀수, 교육정도, 종교 그리고 월평균 소득 변수들을 통계변수로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변수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대한 것만을 도표로 보여주었다.

## (2) 가부장적 태도, 효율적 의사소통이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가부장적 태도와 효율적 의사소통이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분석결과는 [표 5-9]에 제시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제시하였다. 먼저 인구통계 변수들이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여성(beta=-.338, p<.001)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여성의 결혼불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는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도에서 일

관적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만족이 높다고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으며(유영주, 1978; 이옥진, 1982; 최규련, 1987; 권정혜.채규만; 1998), 이는 가부장제 전통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남편보다는 부인에게 보다 많은 복종과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였다(허윤정, 1996). 연령에서의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영주(1978)와 허윤정(1996)이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만족은 높아진다고 한 반면, 박경자(1981)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모두 연령과 결혼만족과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교육수준에서의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관계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오선주, 2000; 강혜숙, 2003), 간혹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임승락, 1998; whyte, 1990)는 연구결과에서 후자가 본 논문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가부장적 태도 전체는 결혼불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beta=-.061, n.s). 가부장적 태도 하위변수들의 영향력에서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가 높을수록 결혼불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beta=-.239, p<.01). 따라서 “가부장적 태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다”.는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표 5-9] 가부장적 태도와 효율적 의사소통이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결혼불만족도   |          |           |           |
|----------------|------|----------|----------|-----------|-----------|
|                |      | M9       | M10      | M11       | M12       |
| 통제변수           |      |          |          |           |           |
| 성별             |      | -.338*** | -.293*** | -.160**   | -.152**   |
| 연령             |      | -.081    | -.101    | -.050     | -.048     |
| 교육수준           |      | -.074    | -.078    | -.057     | -.056     |
| 가부장적 태도        |      |          |          |           |           |
| 가족구성원에 대한 태도   |      |          | -.209**  |           | -.058     |
| 자녀양육 가치관       |      |          | .015     |           | -.008     |
| 정서표현과 가족 결속력   |      |          | .053     |           | .076      |
| 여성의 역할         |      |          | .136*    |           | -.035     |
| 효율적 의사소통       |      |          |          |           |           |
| 의사소통 정도        |      |          |          | -.106     | -.112     |
| 의사소통 일치도       |      |          |          | -.284***  | -.298***  |
| 의사소통 개방도       |      |          |          | -.350***  | -.335***  |
| R <sup>2</sup> |      | .221     | .267     | .611      | .615      |
| F-Value        |      | 6.255*** | 5.455*** | 25.603*** | 19.184*** |

주1) \* : p<.05, \*\* : p<.01, \*\*\* : p<.001

주2) 통제변수 중 연령은 실제값이며 성별은 남성 1 여성 0,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1 초대졸 이상 0 으로 더미(dummy) 처리하였음

주3) 인구통계 변수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결혼기간, 거주형태, 자녀수, 교육정도, 종교 그리고 월 평균 소득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인구학적 통제변수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대한 것만을 도표로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효율적 의사소통이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는 결혼불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beta=-.664, p<.001). 효율적 의사소통 하위변수들의 영향력에 있어서 의사소통 일치도와 의사소통 개방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사소통 일치도(beta=-.284, p<.001)와 의사소통 개방도(beta=-.350, p<.001)가 높을수록 결혼불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적 의사소통이 결혼불만족도를

줄이는 유의미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부장적 태도와 효율적 의사소통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부장적 태도 전체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는(beta=-.000, n.s) 반면에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64, p<.001). 가부장적 태도와 효율적 의사소통 각각의 하위변수들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 가부장적 태도 하위변수들 모두는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의사소통 일치도(beta=-.291, p<.001)와 의사소통 개방도(beta=-.328, p<.001)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가부장적 태도 하위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39, p<.01) 즉,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효율적 의사소통이 종속변수인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는 결혼불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며(beta=-.664, p<.001), 효율적 의사소통 하위변수에서 의사소통 일치도(beta=-.284, p<.001)와 의사소통 개방도(beta=-.350, p<.001)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적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의미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는 가설1-3은 지지되었다.

## 2) 매개효과 가설검증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따랐다. 매개변수는 3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역할의 여부가 판단되는데 첫째 단계로 매개변수를 독립변수에 대해 회귀분석 한 다음, 둘

째 단계로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에 대해 동시에 회귀분석 한다. 첫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고, 둘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셋째 단계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되 이 단계의 독립변수의 효과가 둘째 단계의 그것보다 적을 때 매개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 차이가 유의한 경우에 매개변수가 완전매개 했는지, 또는 부분매개 했는지를 분석하는데 어떤 매개변수가 완전매개효과(perfect mediating effect)를 지니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오직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는 위에서 제시한 셋째 단계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매개변수와 독립변수 모두가 유의하고 독립변수 효과가 셋째 단계 회귀분석 때에 둘째 단계 회귀분석 때보다 작으면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Baron & Kenny, 1986).

이 방법의 사용은 두 가지 가정들이 충족될 때 적합한데 하나는 매개변수가 측정오류를 지니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종속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Baron & Kenny, 1986). 만약 이 가정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Lisrel과 같은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이 더욱 적절한 기법이다(Baron & Kenny, 1986). 본 연구에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가정들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두 번째 가정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연구결과에 따르면 종속변수인 결혼불만족도가 매개변수인 효율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고 첫 번째 가정과 관련하여서도 기존의 연구에서 매개변수인 효율적 의사소통의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검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매개회귀 분석 활용에 따른 가정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하였다.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불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의 매개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를 매개로 하여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데 매개효과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 (1)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의 매개효과.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회귀 방정식으로 독립변인으로 가부장적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를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가부장적 태도를 독립변인으로, 결혼불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마지막 회귀방정식에서 가부장적 태도와 효율적 의사소통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결혼불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표5-10>에서와 같이 효율적 의사소통은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불만족도와의 관계를 매개 하였는데,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는 효율적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232, p<.01$ ),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도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는 결혼불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239, p<.01$ ).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효율적 의사소통이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655, p<.001$ ).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불만족도에 유의한 예측변인이었으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적 의사소통은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불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족 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불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며 효율적 의사소통에 의해 매개될 때 결혼불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10〉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의 매개효과

| 구분                   | 단계                   | 변인  | beta              | R <sup>2</sup> | F         |
|----------------------|----------------------|---|-------------------|----------------|-----------|
| 가부장적 태도 전체           | 1 독립 → 매개            | 가부장적 태도 전체 →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                      | .091              | .602           | 27.079*** |
|                      | 2 독립 → 종속            | 가부장적 태도 전체 → 결혼불만족도                           | -.061             |                |           |
|                      | 3 독립 → 종속<br>매개 → 종속 | 가부장적 태도 전체 → 결혼불만족도<br>효율적 의사소통 전체 → 결혼불만족도   | .000<br>-.664***  |                |           |
|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 1 독립 → 매개            |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            | .232**            | .604           | 27.283*** |
|                      | 2 독립 → 종속            |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 결혼불만족도                 | -.239**           |                |           |
|                      | 3 독립 → 종속            |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 결혼불만족도                 | -.047             |                |           |
|                      | 매개 → 종속              |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 → 결혼불만족도                          | -.655***          |                |           |
| 자녀양육 가치관             | 1 독립 → 매개            | 자녀양육 가치관 →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                        | -.019             | .602           | 27.083*** |
|                      | 2 독립 → 종속            | 자녀양육 가치관 → 결혼불만족도                             | .000              |                |           |
|                      | 3 독립 → 종속<br>매개 → 종속 | 자녀양육 가치관 → 결혼불만족도<br>효율적 의사소통 전체 → 결혼불만족도     | .006<br>-.664***  |                |           |
| 정서표현과 가족결속력          | 1 독립 → 매개            | 정서표현과 가족 결속력 →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                    | .064              | .603           | 27.211*** |
|                      | 2 독립 → 종속            | 정서표현과 가족 결속력 → 결혼불만족도                         | .070              |                |           |
|                      | 3 독립 → 종속<br>매개 → 종속 | 정서표현과 가족 결속력 → 결혼불만족도<br>효율적 의사소통 전체 → 결혼불만족도 | .038<br>-.667***  |                |           |
| 여성의 역할               | 1 독립 → 매개            | 여성의 역할 →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                          | -.146*            | .602           | 27.083*** |
|                      | 2 독립 → 종속            | 여성의 역할 → 결혼불만족도                               | .117              |                |           |
|                      | 3 독립 → 종속<br>매개 → 종속 | 여성의 역할 → 결혼불만족도<br>효율적 의사소통 전체 → 결혼불만족도       | -.007<br>-.663*** |                |           |

주1) \* : p<.05, \*\* : p<.01, \*\*\* : p<.001

주2) 1단계의 beta 계수는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회귀분석 결과이며, 2단계의 beta 계수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회귀분석 결과임. R<sup>2</sup>값과 F값은 3단계 회귀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2) 의사소통 정도의 매개효과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불만족도와 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정도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표5-11>에 제시하였다.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의사소통 정도의 매개효과는 매개효과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11>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 정도의 매개효과

| 구분                   | 단계                   | 변인  | beta                | R <sup>2</sup> | F         |
|----------------------|----------------------|---|---------------------|----------------|-----------|
| 가부장적 태도 전체           | 1 독립 → 매개            | 가부장적 태도 전체 → 의사소통 정도                              | .034                | .411           | 12.498*** |
|                      | 2 독립 → 종속            | 가부장적 태도 전체 → 결혼불만족도                               | -.061               |                |           |
|                      | 3 독립 → 종속<br>매개 → 종속 | 가부장적 태도 전체 → 결혼불만족도<br>의사소통 정도 → 결혼불만족도           | -.045<br>-.460***   |                |           |
|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 1 독립 → 매개            |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 의사소통 정도                    | .023                | .430           | 13.494*** |
|                      | 2 독립 → 종속            |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 결혼불만족도                     | -.239**             |                |           |
|                      | 3 독립 → 종속<br>매개 → 종속 |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 결혼불만족도<br>의사소통 정도 → 결혼불만족도 | -.155**<br>-.455*** |                |           |
| 자녀양육 가치관             | 1 독립 → 매개            | 자녀양육 가치관 → 의사소통 정도                                | -.039               | .410           | 12.436*** |
|                      | 2 독립 → 종속            | 자녀양육 가치관 → 결혼불만족도                                 | .000                |                |           |
|                      | 3 독립 → 종속<br>매개 → 종속 | 자녀양육 가치관 → 결혼불만족도<br>의사소통 정도 → 결혼불만족도             | -.020<br>-.462***   |                |           |
| 정서표현과 가족결속력          | 1 독립 → 매개            | 정서표현과 가족 → 의사소통 정도<br>결속력                         | .064                | .409           | 12.417*** |
|                      | 2 독립 → 종속            | 정서표현과 가족 → 결혼불만족도<br>결속력                          | .070                |                |           |
|                      | 3 독립 → 종속<br>매개 → 종속 | 정서표현과 가족 → 결혼불만족도<br>결속력<br>의사소통 정도 → 결혼불만족도      | .001<br>-.461***    |                |           |
| 여성의 역할               | 1 독립 → 매개            | 여성의 역할 → 의사소통 정도                                  | -.011               | .413           | 12.601*** |
|                      | 2 독립 → 종속            | 여성의 역할 → 결혼불만족도                                   | .117                |                |           |
|                      | 3 독립 → 종속<br>매개 → 종속 | 여성의 역할 → 결혼불만족도<br>의사소통 정도 → 결혼불만족도               | -.007<br>-.461***   |                |           |

주1) \* : p<.05, \*\* : p<.01, \*\*\* : p<.001

주2) 1단계의 beta 계수는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회귀분석 결과이며, 2단계의 beta 계수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회귀분석 결과임. R<sup>2</sup>값과 F값은 3단계 회귀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3) 의사소통 일치도의 매개효과

가부장적 태도가 의사소통 일치도를 매개로 하여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효과 검증결과를 적용하였고, 회귀 분석한 결과를 <표 5-12>에 제시하였다. 효율적 의사소통의 변인인 의사소통 일치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의사소통 일치도를 대상으로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도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으로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의사소통 일치도를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를 독립변인으로, 결혼불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마지막 회귀방정식에서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와 의사소통 일치도를 모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결혼불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모든 절차에선 표준화된 회귀 계수가 사용되었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는 의사소통 일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고( $\beta=.193, p<.05$ ),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도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는 결혼불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beta=-.239, p<.01$ ).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의사소통 일치도가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불만족도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 $\beta=-.239, p<.01$ )이었으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일치도는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불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가 의사소통 일치도를 매개로 하여 결혼불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불만족도와 관계에서 의사소통 일치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불만족도와 관계에서 의사소통 일치도의 매개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가부장적 태도 중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소통 일치도를 매개로 하여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매개효과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표 5-12>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 일치도의 매개효과

| 구분                   | 단계        | 변인                              | beta     | R <sup>2</sup> | F         |
|----------------------|-----------|---------------------------------|----------|----------------|-----------|
| 가부장적 태도 전체           | 1 독립 → 매개 | 가부장적 태도 전체 → 의사소통 일치도           | .017     | .553           | 22.117*** |
|                      | 2 독립 → 종속 | 가부장적 태도 전체 → 결혼불만족도             | -.061    |                |           |
|                      | 3 독립 → 종속 | 가부장적 태도 전체 → 결혼불만족도             | .007     |                |           |
|                      | 매개 → 종속   | 의사소통 일치도 → 결혼불만족도               | -.627*** |                |           |
|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 1 독립 → 매개 |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 의사소통 일치도 | .193*    | .554           | 22.259*** |
|                      | 2 독립 → 종속 |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 결혼불만족도   | -.239**  |                |           |
|                      | 3 독립 → 종속 |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 결혼불만족도   | -.045    |                |           |
|                      | 매개 → 종속   | 의사소통 일치도 → 결혼불만족도               | -.617*** |                |           |
| 자녀양육 가치관             | 1 독립 → 매개 | 자녀양육 가치관 → 의사소통 일치도             | -.048    | .553           | 22.117*** |
|                      | 2 독립 → 종속 | 자녀양육 가치관 → 결혼불만족도               | .000     |                |           |
|                      | 3 독립 → 종속 | 자녀양육 가치관 → 결혼불만족도               | -.006    |                |           |
|                      | 매개 → 종속   | 의사소통 일치도 → 결혼불만족도               | -.626*** |                |           |
| 정서표현과 가족결속력          | 1 독립 → 매개 | 정서표현과 가족 결속력 → 의사소통 일치도         | .078     | .555           | 22.632*** |
|                      | 2 독립 → 종속 | 정서표현과 가족 결속력 → 결혼불만족도           | .070     |                |           |
|                      | 3 독립 → 종속 | 정서표현과 가족 결속력 → 결혼불만족도           | .059     |                |           |
|                      | 매개 → 종속   | 의사소통 일치도 → 결혼불만족도               | -.634*** |                |           |
| 여성의 역할               | 1 독립 → 매개 | 여성의 역할 → 의사소통 일치도               | -.173*   | .553           | 22.115*** |
|                      | 2 독립 → 종속 | 여성의 역할 → 결혼불만족도                 | .117     |                |           |
|                      | 3 독립 → 종속 | 여성의 역할 → 결혼불만족도                 | -.003    |                |           |
|                      | 매개 → 종속   | 의사소통 일치도 → 결혼불만족도               | -.626*** |                |           |

주1) \* : p<.05, \*\* : p<.01, \*\*\* : p<.001

주2) 1단계의 beta 계수는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회귀분석 결과이며, 2단계의 beta 계수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회귀분석 결과임. R<sup>2</sup>값과 F값은 3단계 회귀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4) 의사소통 개방도의 매개효과

가부장적 태도가 의사소통 개방도를 매개로 하여 결혼불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적용하였고, 회귀 분석한 결과를 <표5-13>에 제시하였다. 먼저, 첫 번째 회귀 방정식으로 독립변인으로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의사소통 개방도를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를 독립변인으로 결혼불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마지막 회귀 방정식에서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와 의사소통 개방도를 모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결혼불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 개방도는 가부장적 태도의 영역 중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불만족도와의 관계를 매개하였는데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가 의사소통 개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고(beta=.319 p<.001),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도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는 결혼불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beta=-.239 p<.01).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매개 변인인 의사소통 개방도가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족 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불만족도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beta=-.239 p<.01)이었으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개방도는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불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자체가 결혼불만족도를 감소시

키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의사소통 개방도에 의해 매개될 때 결혼불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도식에서 매개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3단계에서의 R제곱을 확인하였고, R제곱의 값이 클수록 매개의 설명력이 커지는 것이다. 효율적 의사소통 하위영역에서의 매개 설명력은 의사소통 전체(60.4%), 의사소통일치도(55.4%), 의사소통 개방도(55.4%)로 나타났다

〈표 5-13〉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 개방도의 매개효과

| 구분                   | 단계        | 변인                              | beta     | R <sup>2</sup> | F         |
|----------------------|-----------|---------------------------------|----------|----------------|-----------|
| 가부장적 태도 전체           | 1 독립 → 매개 | 가부장적 태도 전체 → 의사소통 개방도           | .092     | .569           | 23.600*** |
|                      | 2 독립 → 종속 | 가부장적 태도 전체 → 결혼불만족도             | -.061    |                |           |
|                      | 3 독립 → 종속 | 가부장적 태도 전체 → 결혼불만족도             | -.004    |                |           |
|                      | 매개 → 종속   | 의사소통 개방도 → 결혼불만족도               | -.620*** |                |           |
|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 1 독립 → 매개 |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 의사소통 개방도 | .319***  | .569           | 23.654*** |
|                      | 2 독립 → 종속 |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 결혼불만족도   | -.239**  |                |           |
|                      | 3 독립 → 종속 |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 결혼불만족도   | -.027    |                |           |
|                      | 매개 → 종속   | 의사소통 개방도 → 결혼불만족도               | -.615*** |                |           |
| 자녀양육 가치관             | 1 독립 → 매개 | 자녀양육 가치관 → 의사소통 개방도             | -.013    | .569           | 23.601*** |
|                      | 2 독립 → 종속 | 자녀양육 가치관 → 결혼불만족도               | .000     |                |           |
|                      | 3 독립 → 종속 | 자녀양육 가치관 → 결혼불만족도               | .005     |                |           |
|                      | 매개 → 종속   | 의사소통 개방도 → 결혼불만족도               | -.621*** |                |           |
| 정서표현과 가족결속력          | 1 독립 → 매개 | 정서표현과 가족 결속력 → 의사소통 개방도         | -.038    | .569           | 23.606*** |
|                      | 2 독립 → 종속 | 정서표현과 가족 결속력 → 결혼불만족도           | .070     |                |           |
|                      | 3 독립 → 종속 | 정서표현과 가족 결속력 → 결혼불만족도           | .010     |                |           |
|                      | 매개 → 종속   | 의사소통 개방도 → 결혼불만족도               | -.621*** |                |           |
| 여성의 역할               | 1 독립 → 매개 | 여성의 역할 → 의사소통 개방도               | -.182*** | .569           | 23.599*** |
|                      | 2 독립 → 종속 | 여성의 역할 → 결혼불만족도                 | .117     |                |           |
|                      | 3 독립 → 종속 | 여성의 역할 → 결혼불만족도                 | -.001    |                |           |
|                      | 매개 → 종속   | 의사소통 개방도 → 결혼불만족도               | -.621*** |                |           |

주1) \* : p<.05, \*\* : p<.01, \*\*\* : p<.001

주2) 1단계의 beta 계수는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회귀분석 결과이며, 2단계의 beta 계수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회귀분석 결과임. R<sup>2</sup>값과 F값은 3단계 회귀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VI. 결 론

### 1.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효율적 의사소통이 갖는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서울 인근지역, 전북 군산 일부지역에 위치한 65세 이상 기혼남녀 210명이었으며, 한국형 가부장적 태도 척도(korean Patriarchal Attitude Inventory), 결혼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 의사소통 척도(Communication Inventory)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부장적 태도, 효율적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을 본 결과 가부장적 태도 전체와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상관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부장적 태도의 하위영역 중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가 의사소통 일치도, 의사소통 개방도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만족도와의 상관에서 전체와 하위변수에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효율적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상관에서 전체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인 의사소통의 하위 영역은 의사소통 일치도, 의사소통 개방도, 의사소통 정도의 의사소통 영역 모두가 선택되었다.

둘째,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에 미치는 가부장적 태도 전체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부장적 태도 하위영역 중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에서 의사소통 일치도와 개방도에서 긍정적 영향력이,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일치도와 개방도에서 여성의 역할은 부정적 영향력을 보였다. 이것은 가부장적 태도의 하위영역 중 가족구성

원 역할에 대한 태도에서 의사소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노인들 집단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여성의 역할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 등으로 여성들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부장적 태도와 의사소통간의 관계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적고, 남녀차로 인하여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형편(임정빈 등,1995)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가부장적 태도의 하위영역 중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태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의 역할에서는 의사소통 개방도와 부적상관을 보여, 예상한 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부부간 의사소통 정도가 높으며(김금옥, 1998)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정도가 높다(류경희, 1994)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부장적 태도의 하위영역 중 가족 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보였다. 가부장적 태도 하위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노인들 집단에서는 가부장적 태도를 수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입장에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현실에 만족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는 남편은 근대적일수록(Amoto & Boothe, 1995; Keith & Schafer, 1980;

이미숙, 1995; 조정문, 1995; 최규련, 1993), 아내는 전통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Amoto & Boothe, 1995; 이미숙, 2000; 강기연, 2000; 재인용, 조정문, 1995).

기존의 연구결과는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부인의 주요 역할은 가정관리라고 보는 전통적, 보수적일 경우 부부갈등은 높아져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아내의 성역할 태도가 사회적 정형화에 순응하는 전통적, 보수적일 경우 부부갈등은 적어지고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남편과 아내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닐 때 부부 모두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한 연구 결과(Zvonkovic & Schmiege, 1994; Kim, 1992)는 본 논문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가설1-2는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는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다. 효율적 의사소통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 개방도와 의사소통 일치도 순으로 결혼만족도를 예언해 주었다. 효율적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결과는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할수록 부부의 전반적인 결혼생활의 만족 수준이 상승되었다는 기존의 연구(임승락, 1998)의 결과와 부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부부관계를 안정되고 굳건하게 만들어 준다는(이창숙·유영주, 1988, 재인용) 선행연구와 관련이 있다. 가설1-3은 지지되었다.

셋째, 가부장적 태도에 있어서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증을 한 결과,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별에서 결혼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고,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효율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변수들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은 60대, 70대, 그리고 8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는데 의사소통 정도, 가족구성원에 대한 태도, 정서표현과 가족결속력, 여성의 역할에 있어서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의사소통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구성원에 대한 태도는 70대와 80대 이상이 6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서표현과 가족결속력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다. 여성의 역할에서는 8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좀 더 가부장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후, 변인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성보다 여성의 결혼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과 학력에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에서 일관적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만족이 높다고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는데(유영주, 1978; 이옥진, 1982; 최규련, 1987; 권정혜, 채규만; 1998), 이는 가부장제 전통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남편보다는 부인에게 보다 많은 복종과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였다(허윤정, 1996). 교육과 연령에서의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영주(1978)와 허윤정(1996)이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만족은 높아진다고 한 반면, 박경자(1981)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모두 연령과 결혼만족과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는데 후자가 본 논문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력에 따른 결혼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결혼만족도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교육수준, 소득수준, 남편의 지위수준이 결혼만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이인수, 유영주; 1986, 김화자, 윤종희; 1991)는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불만족도와 학력의 관계에서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넷째, 가부장적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율적 의사소통의 매개 효과를 살펴 본 결과,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회귀 분석을 통해 매개 조건이 성립된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가 의사소통 일치도, 의사소통 개방도를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의사소통 정도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부장적 태도 영역으로 가족 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영역이 선택되었다. 효율적 의사소통은 부부 사이에서 파괴적인 의사소통과 같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상호작용 보다 더 낮은 관계만족과 더 높은 비율의 이혼이나 부부불화와 관련이 있다(Gottman & Notarlus, 2000; Karney & Bradbury, 1995; Markman & Hahlweg, 1993)는 기존의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높은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본 연구의 매개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의사소통 개방도, 의사소통 일치도가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설명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매개전략을 계획할 때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강화시키는 것이 결혼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황혼이혼 위기에 있는 노년기 부부들의 심리치료에 접근한다면 치료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취급되어 오지 않은 노인집단에서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검증해 보았고, 의사소통 측면이 노년기에도 서로 상호작용 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낸 점이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후속 연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인근지역, 전북 군산 일부 지역에 소재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한정된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로서 제한점을 가지며, 조사된 결과를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이 다른 지역의 노인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표집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척도가 젊은층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고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의 연구를 국내 노인들에게 적용시켰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 국내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설문지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조사자가 질문하고 조사대상자의 응답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조사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직접 면접 방식이었을 때 타인에게 좋게 보이려는 한국인의 심성 때문에 바람직한 쪽으로 대답하고 자신의 노력을 꺼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노인들 집단에서는 가부장적 태도를 수용하는 입장은 취하면서도 노인들의 가부장적 가치관과 성역할 태도에서의 실제 행동과의 차이 때문에 변별력 없는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겠다.

끝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젊은 층의 집단과 노인집단의 가부장적 태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해 보는 연구도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강기연. (2000).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 의사결정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사무직, 관리, 전문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강윤. (2010). **경제적 지위에 따른 중년여성이 지각한 남편의 성역할 갈등과 결혼만족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강혜숙. (2003) **결혼초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충북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강희정. (1995). **도시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고재홍. 박영화.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 김금옥. (1998). **부부의 성역할 성향과 의사소통도 및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명숙. (2008). **중년기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민녀. 채규만. (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 곽배희. (1993). **이혼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곽배희. (2001). **한국사회의 이혼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소진. (2009). **황혼이혼 여성노인들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노년학,

1087-1105, 205-224.

- 김시엽, 김정인. (2005). 아내구타와 그 가해자-구타과정 및 가해자의 심리 행동적 특징- .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0(4), 653-676.
- 김선영, 김영희. (2005).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관련된 부부관계요인: 신혼 초와 현재 결혼생활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43(9).
- 김요완. (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성 지식 수준의 성 만족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수. (2002). 노년기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요인: 노년기 이전의 결혼생활 평가를 고려하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희. (1996).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이론적 모형. 한국생활과 학회지, 5(2):53-73.
- 김영혜. (2004). 유배우 노인의 성역할 태도, 가사노동분담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양호. (1997). 맞벌이 가족 남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나. (2001). 노인들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엽, 김희진, 최장원. (2010). 직장 남성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와 아내폭력의 관계에서 나타난 긍정적 의사소통(TSL)의 조절효과.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vol.13, 39-70.
- 김재엽, 김희수. (2003). 여성노인의 가정폭력 피해실태와 정신건강. 한국노년학, 23(2), 51-65.
- 김진영. (2005). 기혼여성의 성행동 및 성만족도와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옥. (1993). **부부폭력에 대한 가정관리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 31(2), 27-40.
- 권정혜. 채규만. (2000). **부부 적응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9(2), 207-218.
- 김태현. (1997).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공유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2): 167-182.
- 김혜경. (1996). **노년기 부부관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화자. 윤종희. (1991). **가족생활 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55-170.
- 구혜경. 유영달. (2008). **기혼부부의 결혼만족도, 이혼고려 정도 및 이혼 장애 요인에 관한 연구:-부부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문화, 20(4), 1-34.
- 류경희. (1994).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간의 인지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모의회. 김재환. (2002).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상담및심리치료, 14(4), 887-90..
- 박은아. (2003).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영애. (2006). **여성노인의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영화. (2004). **부부의 자존감과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 행동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영희. (2008). **남편은퇴 후 가족관계변화가 노년기부부의 심리적 안녕에**

- 미치는 영향. 탐라대학교 경영.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자영. (2009). **중년부부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개발:-Gottman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미승. (2001). **이혼여성의 자녀양육경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송말희, 이정우. (1986).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33-47.
- 송말희. (1990). **기혼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
- 서병숙, 김수현. (2000).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회, 20(1), 55-67.
- 손승영. (1992). **노부부의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 송시내. (1999). **결혼생활 만족과 부부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성자. (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숭전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심선영. (2007). **부부의 경제기여와 경제의존 및 가부장중심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영식. (2005). **황혼이혼의 원인과 대책**. 경상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석지은. (2008). **애착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심리도식을 매개변인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정연. (2006). **결혼생활의 질, 이혼장애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이혼 후 적응:-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화용, 조병은. (1999).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상호작용 특성과 결혼만족도. 한국노년학, 제19권 제1호, pp.31-44.
- 이경옥. (2004). 부부교사의 자원과 의사소통의 상호존중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성. (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여성, 6(2): 97-111.
- 윤경자. (1997). 성역할 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 이동원. (1988).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신, 김유순. (2005). 이혼사유별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연구, 69(2).
- 이미숙. (1990). 한국에서의 결혼만족 연구에 대한 고찰 및 평가 -1968-1999까지의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집, 10(1): 27-72.
- (1996).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정체감이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2000). 부인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부인의 가정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45-61.
- 이무영. (2003). 이혼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명자. (2010). 은퇴한 노인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의사소통의 매개 효과 및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전남대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왕명자, 서은주, 차남현. (2009). 노인의 자기 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1). 23-30.
- 이소영. (2008). 가족건강성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미, 김경신. (2002).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와 우울 및 관련 변인 연구. 한국노년학, 22: 139-157.
- 이신숙, 이경주. (1999). 남자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9(2), 1-13.
- 임승락. (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 만족:-성차, 요구입장 차이 및 성격특성의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승락, 권정혜. (1998) 우울 증상이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2), 17-31.
- 임승은. (2007). 도시 단독가구 노인의 부부적응에 대한 질적연구: -부부 관계유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시순. (2003). 기혼노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성은. ( 2007). 이혼여성의 자존감 회복 과정에 대한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인수, 유영주. (1986).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 1.
- 이윤미. (1995). 배우자에 대한 가정내 역할기대, 수행평가의 차이가 부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윤로, 유시순. (2003). 노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

- 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Vol 1, No1, 1-21.
- 윤영. (1990).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영. 신호식. (1991). 노년기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인 연구. 가정과학연구, vol 1, 59-78.
- 이자현. (2008). 의사소통 양식과 결혼만족도의 연관성.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상황과 복지, 22.
- 임정빈. 지영숙 외. (1996). 가정관리학. 학지사.
- 유점숙. (1994). 부부 의사소통 특성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순. 박성연. (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pp 175-189.
- 이주홍. (2002). 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에 관한 연구-1997년 이후 구조적요인과 미시적 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숙. (1988). 주부의 내외통제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철인. (2010). 부부 성역할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창훈. (2008). 부부의사소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창숙. (1988). 한국남편과 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pp. 1-25.
- 이행옥. (2002). 노년기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정서적 상호작용, 사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은경. (2001).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선녀. (2009). **부부사이의 자원과 권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승혜. (1988).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용재. (1985).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정문. (1995). **결혼생활의 공평성 인지와 결혼만족**. 한국사회학, 29:59-84.
- 주혜주. (2004). **이혼여성의 이혼결정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2).
- 채규만, 최규련. (1996). **부부가 함께 말하고 듣기**. 한국가족상담연구소.
- 최규련. (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22(2), 91-101.
- 최규련. (1987). **한국 도시 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규련. (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62-84.
- 현경자. (2004). **기혼남녀의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56(4).
- 홍달아기. (2005). **결혼만족도와 노년기부부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6), 883-898.

- 홍순건. (2005). **건강한 부부의 특징: Gottman의 이론을 중심으로**. 성신여대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허윤정. (1996).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황옥경. (2004). **남성의 성역할, 성역할 갈등과 결혼만족도**.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현진희. (2007). **폭력행동 감소와 관계개선을 위한 부부집단 프로그램의 과정분석 효과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한혜경. 강유진. 한민아. (2003). **이혼태도와 관련요인**. 가족과문화. 15(1), 77-96.
- 성삼경·최종후·이재창(1993). “**경영학 연구 논문의 통계적 오류**,” 「경영학연구」, 제 22권 제2호(통권 33호), pp.163-198.
- 이군희. (2004).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수정판, 서울: 법문사.
- 채서일. (1997).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제2판, 서울: 학현사.
- 서울여성백서. (2000). **황혼이혼**.
- 통계청. (2009). **2010년 혼인. 이혼통계 결과**.
- 통계청. (2009). **고령자통계**.
- Atlee, L. S., Gene E. P. (2000). **Economic Well-Being Among White Elderly Divorced**.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31(3&4), 53-68.
- Acitelli, L. K., Douvan, E., & Veroff, J. (1993). **Perceptions of conflict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How important are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0, 5-19.

- Amato, Paul R. and Booth, Alan. (1995). "Changes in gender role attitudes and perceived marital 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58-66.
- Birchler, G. R., & Fals-stewart, W. (1998). Marriage and divorce. in H. Michel & B. vincent(Eds.), *Handbook of Clinical Geropsychology* (pp, 449-464). New York: Pleunm Press.
- Bodenmann, G. (1997). Can divorce be prevented by enhancing the coping skills of coupl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7, 177-194.
- Blatter, C. W., & Jacobsen, J. J. (1993). Older women coping with divorce: Peer support groups. *Women and Aging*, 14(1&2), 141-155.
- Booth. A & White. L. (1980). "Thinking abou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605-61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73-1182.
- Cain, B. S. (1988). Divorce Among Elderly Women: A Growing Social Phenomenon. *Social Casework*, 69(9), 563-568.
- Connidis, I. A. (1989). *Family Ties and Aging*. Toronto & Vancouver: Butter-worth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174-188.

- Christensen, A. (1988). Dysfunctional interaction patterns in couples. In P. Noller & M. A. Fitzpatrick (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Clevedon, England: Mutilingual Matters.
- Gottman, J. M., & Notarius, C. L. (2000). Decade review: Observing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27-947.
- Gottman, J. M., & Levenson, R.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3), 737-745.
- Gilford, R. (1986). Marriage in Later Life. *Generation*, 10, 16-20.
- Goldstein, J. H. (1986). Aggression and crimes of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 332-354.
- Hennon, C. B., Burton, J. R. (1981). well-Being of Divorced Elderly and Their Dependency on Adult Children. *Reports-Research; speeches/Meeting papers*.
- Huston, T. L., Caughlin, J. P., Houts, R. M., Smith, S. E., & George, L. J. (2001). The connubial crucible: Newlywed years as predictors of marital delight, distress, and divor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237-252.
- Hicks, M. W and M. Platt,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 research in the Six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4), 1979.

- Haukins, J. L., (1968).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647-648.
- Judith, R, Jamia, J. J, & Carol. J. B. (2006). Support groups for persons experiencing divorce in later life.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9(4), 477-486.
- Jacobson, N. S., & Margolin, G. (1979). *Marital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Longitudinal research on marriage.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eith P. M. & Schafer, R. B. (1980). "Equity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Coupl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4): 430-35.
- Kim, H. J. (1992). "Gender role equity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Korean coupl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1(2):99-120.
- Levinger. G. (1979). A Social exchange view on the dissolution of pair relationships. In R. L. Burgess & T.L . Huston(Eds),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169-193. New York: Academic Press.
- Lawton, L. E., Regina B. (2001). Parental divorce and the "switching"of religious identit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0(11), 99-11.
- Lee, J. K., & Han, A.K. (1996).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Adult Nurs, 8(1), 55-68.

Lentall. (1979).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October.

Lewis, R. A. & Spanier, G. B., "Marital Quality: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2(4), 1980.

Miles. (Eds). Divorcand separation Contest, causes and consequences New York Basic B.

Marylyn, L. L. (1996). Divorce experienced as an older woman: Divorce is increasing for older women ,and nurses are often in a unique position to help divorcees to move on to a satisfying life. Geriatric Nursing, 17(4), 166-170.

Mariah, E., and Jonathan, K. (2009). Traditional Lifestyles protest Against Parental Divorce; Effects of Religion, Ethnicity Rurality and Mother's Employment in Australia in the 20th century, Inter -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Forthcoming.

Markman, H. J., & Hahlweg, K. (1993). The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marital distres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 29-43.

Naohiro Ogawa, John, F. E. (1994).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Divorce Risk in Japan. Fondazione Giacomo Brodolini,

8(2), 193-219.

- Namkee G. Choi A. (1995). Long-Term Elderly Widows and Divorce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Journal of Women & Aging*, 7(3), 69-92.
- Park, H. S. (1994). The effect of group cognitive therapy on depression, self-esteem and loneliness of the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Kyungbu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 Daegu.
- Rogge, R. M., Bradbury, T. N. (1999). Recent advances in the prediction of marital outcomes. R. Berger, M. T. Hannah(Eds). *Preventive approaches in couple therapy*, 331-360. Philadelphia, PA. US: Brunner /Mazel, Inc.
- Robb, A. L. (2004). The Economic Legacy of Divorce and Separation for Women in Old Age. *Canadian Journal on Aging*, 23, 83-97.
- Rice, P. F. (1979).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Allyn and Bacon.
- Sweeney, M. M. (2002). "Remarriage and the nature of divorce: Does the matter which spouse chose to leave?,"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23(3), pp. 410-440.
- Stanley, S. M., Markman, H. J., & Whitton, S. W. (2002). *Communication, Conflict, and Commitment: Insights on the Foundations of Relationship Success from a National Survey*. *Family Process*, 41(4), 659-675.

- Scott, M. S., Howard, J. M., Michell, S. P., & B. Douglas Leber. (1995). Strengthening marriages and preventing divorce :new directions in prevention research, *Family Relations*, 44(4), 392-401.
- Skaldeman, P.,& Montgomery, H. (1999). Impotence and attainment of values among married and divorced coupl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0, 143-158.
- Weingarten, H. R. (1988a). The impact of late life divorce: a conceptual and empirical study. *Journal of divorce*, 12(1), 21-39. (1988b). Late life divorce and the life review.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2(3), 83-97.
- Zvonkovic, A. M. and Schmiede, c. J. (1994). "Influence Strategies used when couples make work-family decisions and their importance for marital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43(2): 182-89.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riarchal Attitude and Elderly -Marriage Satisfaction - The Role of Effective Communication as A Mediator -**

**Mee-Hye Ko**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atriarchal attitud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for the these variables. Two hundred and ten married men and women elderlies over 65 years old who live in Metropolitan Seoul areas, and Gunsan city in Jeollabuk-do participated for this study. Patriarchal Attitude Inventory,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and Communication Inventory were administered to the subjects.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t-test, ANOVA,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patriarchal attitudes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also no relationship between the patriarchal attitudes and effective communication for the participants. However,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ive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are more important for the elderlies' marital satisfaction.

Second, the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the patriarchal attitudes on communication. The results showed the positiv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effective communication and the role of family member, that is the sub-factor of patriarchal attitudes, while there was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effective communication and the role of women at home.

Third, there was no group difference between the men and women in terms of patriarchal attitudes. The men, however, showed more marital satisfaction than that of the women.

Fourth,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no mediating effect of the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patriarchal attitudes and the marital satisfaction. This result was not supportive of hypothesis of the study. However, the direct communication skill seems to be more important for marital satisfaction.

Lastl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have been discussed.

Key point: Korean Patriarchal Attitude, Marital Satisfaction, Attitude, Communication Attitude.

〈부록 1〉

[표 5-14] 효율적 의사소통에 대한 요인분석

| 우리 부부는...                          | Factor 1<br>의사소통<br>개방도 | Factor 2<br>의사소통<br>일치도 | Factor 3<br>의사소통<br>정도 |
|------------------------------------|-------------------------|-------------------------|------------------------|
| B01. 부부생활(애정/건강/성 등)에 대해 자주 이야기    | <b>0.447*</b>           | 0.088                   | <b>0.554*</b>          |
| B02. 친척이나 친구관계에 대해 자주 이야기          | 0.082                   | 0.162                   | <b>0.683*</b>          |
| B03. 의, 식, 주 생활에 대해 자주 이야기         | 0.299                   | 0.117                   | <b>0.808*</b>          |
| B04.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자주 이야기            | 0.311                   | 0.180                   | <b>0.704*</b>          |
| B05. 가족행사나 모임에 대해 자주 이야기           | 0.148                   | 0.323                   | <b>0.739*</b>          |
| B06. 자녀나 손자, 손녀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      | 0.176                   | 0.160                   | <b>0.739*</b>          |
| B07. 재정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              | 0.065                   | 0.204                   | <b>0.736*</b>          |
| B08. 가족행사나 모임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        | 0.241                   | <b>0.611*</b>           | <b>0.410*</b>          |
| B09. 부부생활(애정/건강/성 등)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 | 0.391                   | <b>0.574*</b>           | 0.375                  |
| B10. 자녀 손자/손녀 문제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     | 0.359                   | <b>0.724*</b>           | 0.219                  |
| B11.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         | 0.279                   | <b>0.790*</b>           | 0.238                  |
| B12. 의, 식, 주 생활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      | 0.284                   | <b>0.751*</b>           | 0.155                  |
| B13. 친척이나 친구관계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       | 0.294                   | <b>0.792*</b>           | 0.128                  |
| B14. 재정 문제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           | 0.327                   | <b>0.775*</b>           | 0.203                  |
| B15. 취미나 여가생활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        | <b>0.515*</b>           | <b>0.556*</b>           | 0.198                  |
| B17. 하루 일과를 솔직하게 이야기               | <b>0.505*</b>           | <b>0.520*</b>           | 0.233                  |
| B19.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함            | <b>0.770*</b>           | 0.314                   | 0.243                  |
| B20.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을 먼저 들어줌           | <b>0.766*</b>           | 0.332                   | 0.260                  |
| B21.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눔                  | <b>0.797*</b>           | 0.337                   | 0.202                  |
| B22. 거의 모든 일을 함께 상의함               | <b>0.780*</b>           | 0.346                   | 0.219                  |
| B23.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함          | <b>0.698*</b>           | <b>0.494*</b>           | 0.187                  |
| B24.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해 줌              | <b>0.798*</b>           | 0.317                   | 0.195                  |
| B25.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노력함          | <b>0.817*</b>           | 0.283                   | 0.202                  |

| 설명된 총분산 |        |       |       |            |       |       |            |       |       |
|---------|--------|-------|-------|------------|-------|-------|------------|-------|-------|
| 성분      | 초기 고유값 |       |       | 추출 제곱합 적재값 |       |       | 회전 제곱합 적재값 |       |       |
|         | 전체     | %분산   | %누적   | 전체         | %분산   | %누적   | 전체         | %분산   | %누적   |
| 1       | 12.04  | 52.35 | 52.35 | 12.04      | 52.35 | 52.35 | 5.88       | 25.55 | 25.55 |
| 2       | 2.25   | 9.77  | 62.12 | 2.25       | 9.77  | 62.12 | 5.34       | 23.22 | 48.77 |
| 3       | 1.40   | 6.09  | 68.22 | 1.40       | 6.09  | 68.22 | 4.47       | 19.45 | 68.22 |

## 〈부록 2〉

### 〈표 5-15〉 가부장적 태도의 설문항목

| 항 목  |
|--|
| C01.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지위는 동등하다. (Reverse)  |
| C02. 이혼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나쁜 것이다.   |
| C03. 남편이 해야 할 역할과 아내가 해야 할 역할은 성에 따라서 구분되어야 한다.  |
| C04. 아내가 바람피우는 것이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보다 가정생활에 더 해를 끼친다.  |
| C05. 결혼한 남편은 자기 부인보다는 친부모님들에 대해 더 책임을 져야 한다.   |
| C06. 결혼한 여자는 친정 부모에 대한 책임보다는 시집 부모에 대한 책임이 앞선다.  |
| C07. 만일 남편이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한다면, 여자는 집 밖에서 일하는 것 보다는 집안에 머무르는 편이 아마도 더 행복할 것이다.               |
| C08. 장남이 차남들보다 더 중요하다.   |
| C09. 장남은 부모가 연로할 경우 부모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
| C10. 만일에 한 개인이 실직했을 경우에는 정부보다는 그 가족들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
| C11. 아버지가 가족의 모든 일에 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
| C12. 자녀가 결혼을 해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었는지라도, 자신들의 부부문제와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부모들의 충고나 의사들을 항상 따라야 한다. |
| C13. 아버지가 사춘기 이후의 자녀들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애정을 표현하게 되면 권위가 떨어진다.                               |
| C14.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하고 친밀하고, 정적이면서 스스럼없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Reverse)                              |
| C15. 남자가 대중 앞에서 아내라 할지라도 여자하고 껴안거나 키스하면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바보스런 것이다.                           |
| C16. 여자는 결혼 전 누구하고도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 C17. 부모의 결정에 대해 자주 의견을 제기하는 자녀는 착한 아이가 아니다.  |
| C18. 부모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껴안거나 키스하면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바보스럽다.                               |
| C19.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 보다는 같은 지역 출신과 결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 C20. 여자라도 원한다면 신체적으로 힘든 운동에 참여해도 괜찮다. (Reverse)  |

---

항 목

---

- C21.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녀들 모두를 교육시킬 형편이 못될 때 딸보다는 아들의 교육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
- C22. 자녀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최종 결정은 부모들이 내려야 한다.
- C23. 남자와 여자는 결혼 전에 동거해서는 안 된다.
- C24. 가족 중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정신병에 걸린다는 것은 온 가족 식구들에게 수치스런 일이다.
- C25.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 데이트를 시작해도 괜찮다. (Reverse)
- C26. 여자의 역할은 가정에서 남자와 동등하다. (Reverse)
- C27. 부모들이 자녀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신체적인 벌을 사용해야 한다.
- C28.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한다면 음주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다. (Reverse)
- C29.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하라고 하던지 간에 부모에게 존경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

### 〈부록 3〉

#### 〈표 5-16〉 결혼만족도의 설문항목

---

항 목

---

- A01. 나는 우리의 결혼생활이 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Reverse)
- A02. 나는 결혼생활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Reverse)
- A03. 우리는 다른 부부들처럼 잘 지내지 못한다.
- A04. 때때로 나는 배우자를 몹시 떠나고 싶다.
- A05. 나는 결혼생활에서 충족되지 못한 중요한 욕구들이 있다.
- A06. 우리 결혼생활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 A07. 나는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에도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
- A08. 나는 우리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한 적이 있다.
- A09. 우리는 별거하거나 이혼할 뻔 한 적이 없다. (Reverse)
- A10. 내 결혼은 여러 가지 점에서 실망스럽다.
- A11. 우리는 매우 자주 말다툼을 한다.
- A12. 만일 내가 내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더 행복하게 느낄 것이다.
- A13. 나는 때때로 내 결혼에 대해서 꽤 낙심하게 된다.
- A14.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부보다 더 행복하다. (Reverse)
- A15. 우리 결혼생활의 미래는 너무 불확실해서 중요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 A16. 우리 결혼생활의 미래는 나쁜 점보다 좋은 점들이 훨씬 많다. (Reverse)
- A17. 내 생각에 우리 결혼은 성공적이다. (Reverse)
- A18. 나는 결혼생활에서 거의 불행함을 모르고 지내 왔다. (Reverse)
- A19. 나는 내 결혼생활의 많은 부분에 대해 만족스럽게 여긴다. (Reverse)
- A20. 나는 배우자와 함께 부부 상담을 받아 볼 생각을 종종 했다.
- A21. 우리 결혼생활이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의 결혼생활 만큼 즐겁다고 생각한다.  
(Reverse)
- A22. 내 결혼은 매우 만족스럽다. (Reverse)
-

## 〈부록 4〉

### 〈표 5-17〉 의사소통의 설문항목

---

#### 항 목

---

- B01. 우리 부부는 부부생활(애정, 건강, 성 등)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B02. 우리 부부는 친척이나 친구관계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B03. 우리 부부의 의, 식, 주생활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B04. 우리 부부는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B05. 우리 부부는 가족행사나 모임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B06. 우리 부부는 자녀나 손자, 손녀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B07. 우리 부부는 재정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 B08. 우리 부부는 가족행사나 모임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 B09. 우리 부부는 부부생활(애정, 건강, 성 등)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 B10. 우리부부는 자녀나 손자, 손녀 문제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 B11. 우리 부부는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 B12. 우리 부부는 의, 식, 주 생활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 B13. 우리 부부는 친척이나 친구관계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 B14. 우리 부부는 재정 문제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 B15. 우리 부부는 취미나 여가생활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 B16. 우리 부부는 각자의 생각을 망설임 없이 이야기 한다.
  - B17. 우리 부부는 하루 일과를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 B18. 우리 부부는 비밀스런 일은 누구보다도 먼저 배우자에게 털어 놓는다.
  - B19. 우리 부부는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 B20. 우리 부부는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을 먼저 들어준다.
  - B21. 우리 부부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 B22. 우리 부부는 거의 모든 일을 함께 상의한다.
  - B23. 우리 부부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 한다.
  - B24. 우리 부부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해 준다.
  - B25. 우리 부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귀하의 결혼 생활에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컴퓨터로 처리되며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므로 모든 응답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 질문에 옳은 답이나 그른 답은 없습니다.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하시고 빠지는 문항 없이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자료는 앞으로 노년기 부부관계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임상심리학과

지도교수 채규만  
연구자 고미혜

I. 다음 질문은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해당되는 곳에  $\sqrt{\quad}$  표 하거나 기록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남(            )    여(            )
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이십니까 ? (만            )
3. 현재의 결혼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결혼(     )    별거(     )    이혼(     )    사별(     )    재혼(     )
4. 귀하의 결혼생활(또는 동거) 기간은 어떠하십니까?  
(            )년 (            )개월 정도
5. 귀하의 거주형태는 어떠하십니까?  
① 독신가구    ② 부부가구    ③ 부부+ 자녀    ④ 한부모+ 자녀  
⑤ 생활시설(공동체 가정, 그룹홈 등)    ⑥ 3세대가구    ⑦ 기타(            )
6. 귀하의 자녀의 수는 어떠하십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⑤ 없음
7.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무학    ② 초졸 혹은 중퇴    ③ 중졸 혹은 중퇴    ④ 고졸 혹은 중퇴  
⑤ 초대졸 혹은 중퇴    ⑥ 대졸 혹은 중퇴    ⑦ 대학원 졸 혹은 중퇴    ⑧ 기타(            )
8.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불교    ② 천주교    ③기독교    ④ 유교    ⑤ 없음    ⑥ 기타(            )
9.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이십니까?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II. 다음은 귀하의 현재 결혼 생활 전반에 관해 묻는 문항들입니다. 귀하에게 해당 된다고 생각되면, ‘그렇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아니다’에 ○표하여 주십시오.

| 문 항   | 그렇다 | 아니다 |
|---|-----|-----|
| 1. 나는 우리의 결혼생활이 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 1   | 2   |
| 2. 나는 결혼생활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 1   | 2   |
| 3. 우리는 다른 부부들처럼 잘 지내지 못한다.                    | 1   | 2   |
| 4. 때때로 나는 배우자를 몹시 떠나고 싶다.                     | 1   | 2   |
| 5. 나는 결혼생활에서 충족되지 못한 중요한 욕구들이 있다.             | 1   | 2   |
| 6. 우리 결혼생활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 1   | 2   |
| 7. 나는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에도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             | 1   | 2   |
| 8. 나는 우리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한 적이 있다.         | 1   | 2   |
| 9. 우리는 별거하거나 이혼할 뻔 한 적이 없다.                   | 1   | 2   |
| 10. 내 결혼은 여러 가지 점에서 실망스럽다.                    | 1   | 2   |
| 11. 우리는 매우 자주 말다툼을 한다.                        | 1   | 2   |
| 12. 만일 내가 내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더 행복하게 느낄 것이다.     | 1   | 2   |
| 13. 나는 때때로 내 결혼에 대해서 꽤 낙심하게 된다.               | 1   | 2   |
| 14.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부보다 더 행복하다.            | 1   | 2   |
| 15. 우리 결혼생활의 미래는 너무 불확실해서 중요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 1   | 2   |
| 16. 우리 결혼생활의 미래는 나쁜 점보다 좋은 점들이 훨씬 많다          | 1   | 2   |
| 17. 내 생각에 우리 결혼은 성공적이다.                       | 1   | 2   |
| 18. 나는 결혼생활에서 거의 불행함을 모르고 지내 왔다.              | 1   | 2   |
| 19. 나는 내 결혼생활의 많은 부분에 대해 만족스럽게 여긴다.           | 1   | 2   |
| 20. 나는 배우자와 함께 부부 상담을 받아 볼 생각을 종종 했다.         | 1   | 2   |
| 21. 우리 결혼생활이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의 결혼생활 만큼 즐겁다고 생각한다. | 1   | 2   |
| 22. 내 결혼은 매우 만족스럽다.                           | 1   | 2   |

Ⅲ. 다음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 문 항  | 전혀<br>그렇<br>지<br>않다 | 대<br>체로<br>그<br>렇<br>지<br>않<br>다 | 반반<br>이다 | 대<br>체로<br>그<br>렇<br>다 | 매<br>우<br>그<br>렇<br>다 |
|--|---------------------|----------------------------------|----------|------------------------|-----------------------|
| 1. 우리 부부는 부부생활(애정, 건강, 성 등)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1                   | 2                                | 3        | 4                      | 5                     |
| 2. 우리 부부는 친척이나 친구관계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1                   | 2                                | 3        | 4                      | 5                     |
| 3. 우리 부부의 의. 식. 주 생활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1                   | 2                                | 3        | 4                      | 5                     |
| 4. 우리 부부는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1                   | 2                                | 3        | 4                      | 5                     |
| 5. 우리 부부는 가족행사나 모임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1                   | 2                                | 3        | 4                      | 5                     |
| 6. 우리 부부는 자녀나 손자, 손녀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1                   | 2                                | 3        | 4                      | 5                     |
| 7. 우리 부부는 재정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1                   | 2                                | 3        | 4                      | 5                     |
| 8. 우리 부부는 가족행사나 모임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 1                   | 2                                | 3        | 4                      | 5                     |
| 9. 우리 부부는 부부생활(애정, 건강, 성 등)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 1                   | 2                                | 3        | 4                      | 5                     |
| 10. 우리 부부는 자녀나 손자, 손녀 문제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 1                   | 2                                | 3        | 4                      | 5                     |
| 11. 우리 부부는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 1                   | 2                                | 3        | 4                      | 5                     |
| 12. 우리 부부는 의. 식. 주 생활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 1                   | 2                                | 3        | 4                      | 5                     |
| 13. 우리 부부는 친척이나 친구관계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 1                   | 2                                | 3        | 4                      | 5                     |
| 14. 우리 부부는 재정 문제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 1                   | 2                                | 3        | 4                      | 5                     |
| 15. 우리 부부는 취미나 여가생활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 1                   | 2                                | 3        | 4                      | 5                     |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반반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6. 우리 부부는 각자의 생각을 망설임 없이 이야기한다.          | 1         | 2          | 3    | 4       | 5      |
| 17. 우리 부부는 하루 일과를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 1         | 2          | 3    | 4       | 5      |
| 18. 우리 부부는 비밀스런 일은 누구보다도 먼저 배우자에게 털어 놓는다. | 1         | 2          | 3    | 4       | 5      |
| 19. 우리 부부는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 1         | 2          | 3    | 4       | 5      |
| 20. 우리 부부는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을 먼저 들어준다.          | 1         | 2          | 3    | 4       | 5      |
| 21. 우리 부부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 1         | 2          | 3    | 4       | 5      |
| 22. 우리 부부는 거의 모든 일을 함께 상의한다.              | 1         | 2          | 3    | 4       | 5      |
| 23. 우리 부부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 한다.        | 1         | 2          | 3    | 4       | 5      |
| 24. 우리 부부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해 준다.             | 1         | 2          | 3    | 4       | 5      |
| 25. 우리 부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 1         | 2          | 3    | 4       | 5      |

IV. 다음의 설문서에는 여러 가지 진술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중의 어떤 내용도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진술 내용에 관해서 동의하는 사람도 많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진술 내용들에 관한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알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 각 문항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 강하게<br>동의하지<br>않음 | 동의하지<br>않음 | 약간<br>동의하지<br>않음 | 약간 동의함 | 동의함 | 강하게<br>동의함 |
|-------------------|------------|------------------|--------|-----|------------|
| 1                 | 2          | 3                | 4      | 5   | 6          |

만약 진술내용에 매우 강하게 동의하고 그것이 당신의 태도의 중요한 일면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면, “강하게 동의함(6)”에 ✓ 해주십시오. 한편, 만일 진술내용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느끼실 경우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1)”에 ✓ 해주십시오. 만약 진술내용에 단지 약간 동의하거나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면 각각 “약간 동의함(4)”, “약간 동의하지 않음(3)”에 ✓ 해주십시오. 만약 그보다 좀 더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동의함(5)” 또는 “동의하지 않음(2)”에 ✓ 해주십시오.

♣ 가능한 모든 질문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항  |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약간 동의하지 않음 | 약간 동의함 | 동의함 | 강하게 동의함 |
|---|-------------|---------|------------|--------|-----|---------|
| 1.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지위는 동등하다.   | 1           | 2       | 3          | 4      | 5   | 6       |
| 2. 이혼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나쁜 것이다.  | 1           | 2       | 3          | 4      | 5   | 6       |
| 3. 남편이 해야 할 역할과 아내가 해야 할 역할은 성에 따라서 구분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6       |
| 4. 아내가 바람피우는 것이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보다 가정생활에 더 해를 끼친다.   | 1           | 2       | 3          | 4      | 5   | 6       |
| 5. 결혼한 남편은 자기 부인보다는 친부모님들에 대해 더 책임을 져야 한다.  | 1           | 2       | 3          | 4      | 5   | 6       |
| 6. 결혼한 여자는 친정 부모에 대한 책임보다는 시집부모에 대한 책임이 앞선다.  | 1           | 2       | 3          | 4      | 5   | 6       |
| 7. 만일 남편이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한다면, 여자는 집 밖에서 일하는 것 보다는 집안에 머무르는 편이 아마도 더 행복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6       |
| 8. 장남이 차남들보다 더 중요하다.  | 1           | 2       | 3          | 4      | 5   | 6       |
| 9. 장남은 부모가 연로할 경우 부모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 1           | 2       | 3          | 4      | 5   | 6       |
| 10. 만일에 한 개인이 실직했을 경우에는 정부 보다는 그 가족들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6       |
| 11. 아버지가 가족의 모든 일에 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 1           | 2       | 3          | 4      | 5   | 6       |
| 12. 자녀가 결혼을 해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었을지라도, 자신들의 부부문제와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부모들의 충고나 의사들을 항상 따라야 한다. | 1           | 2       | 3          | 4      | 5   | 6       |
| 13. 아버지가 사춘기 이후의 자녀들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애정을 표현하게 되면 권위가 떨어진다.                               | 1           | 2       | 3          | 4      | 5   | 6       |
| 14.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과 친밀하고, 정적이면서도 스스럼없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1           | 2       | 3          | 4      | 5   | 6       |
| 15. 남자가 대중 앞에서 아내라 할지라도 여자 하고 껴안거나 키스하면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바보스런 것이다.                          | 1           | 2       | 3          | 4      | 5   | 6       |
| 16. 여자는 결혼 전 누구하고도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1           | 2       | 3          | 4      | 5   | 6       |

| 문 항  | 강하게<br>동의<br>하지<br>않음 | 동<br>의<br>하<br>지<br>않<br>음 | 약간<br>동<br>의<br>하<br>지<br>않<br>음 | 약간<br>동<br>의<br>합 | 동<br>의<br>합 | 강하<br>게<br>동<br>의<br>합 |
|--|-----------------------|----------------------------|----------------------------------|-------------------|-------------|------------------------|
| 17. 부모의 결정에 대해 자주 의견을 제기하는 자녀는 착한 아이가 아니다.                               | 1                     | 2                          | 3                                | 4                 | 5           | 6                      |
| 18. 부모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껴안거나 키스하면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바보스럽다.                | 1                     | 2                          | 3                                | 4                 | 5           | 6                      |
| 19.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 보다는 같은 지역 출신과 결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1                     | 2                          | 3                                | 4                 | 5           | 6                      |
| 20. 여자라도 원한다면 신체적으로 힘든 운동에 참여해도 괜찮다.                                     | 1                     | 2                          | 3                                | 4                 | 5           | 6                      |
| 21.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녀들 모두를 교육시킬 형편이 못될 때 딸보다는 아들의 교육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            | 1                     | 2                          | 3                                | 4                 | 5           | 6                      |
| 22. 자녀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최종 결정은 부모들이 내려야 한다.                                   | 1                     | 2                          | 3                                | 4                 | 5           | 6                      |
| 23. 남자와 여자는 결혼 전에 동거해서는 안 된다.  | 1                     | 2                          | 3                                | 4                 | 5           | 6                      |
| 24. 가족 중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정신병에 걸린다는 것은 온 가족 식구들에게 수치스런 일이다. | 1                     | 2                          | 3                                | 4                 | 5           | 6                      |
| 25.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 데이트를 시작해도 괜찮다.   | 1                     | 2                          | 3                                | 4                 | 5           | 6                      |
| 26. 여자의 역할은 가정에서 남자와 동등하다.   | 1                     | 2                          | 3                                | 4                 | 5           | 6                      |
| 27. 부모들이 자녀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신체적인 벌을 사용해야 한다.                                | 1                     | 2                          | 3                                | 4                 | 5           | 6                      |
| 28.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한다면 음주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다.                                 | 1                     | 2                          | 3                                | 4                 | 5           | 6                      |
| 29.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하라고 하던지 간에 부모에게 존경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 1                     | 2                          | 3                                | 4                 | 5           | 6                      |